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20호 (11월 2~11월 8일)



특집1 - 2001년, 금기를 넘어 주체사상을 이야기하다

특집2 - 화약연기를 걷어야 6.15공동선언이 보인다

노작 -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논평

이회창 죄록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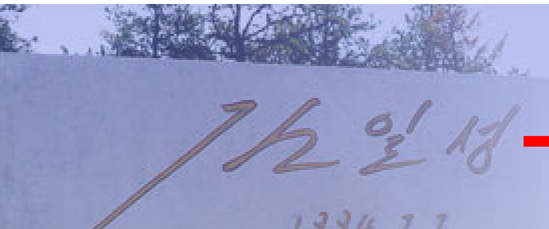
제20호 (11.2~11.8)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주체70(1981)년 10월 15일)

김일성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이 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생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지지성원도 역시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선생이 이번에 판문점에 가보았다고 하는데 판문점은 우리 군대와 미제침략군이 직접 맞붙어 대치하고있는 위험한곳입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믿음직하지만 미제침략군은 짐승과 같은놈들이기때문에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제5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던 때였는데 판문점에서 우리 군인들과 미제침략군놈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래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는 무장한 인원이 들어갈수 없고 그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제침략군놈들은 공동경비구역안에 있는 백양나무를 저들의 감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마구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백양나무는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20여년이 되여오는 동안 아무런 말썽없이 고이 자란 나무인데 갑자기 그 백양나무를 찍겠다고 14명의 미제침략군놈과 3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담당한 4명의 우리 군인들은 적들에게 백양나무를 정 찍겠으면 당신네 비서장에게 보고하여 쌍방 비서장회의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찍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놈들은 우리 군인들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도끼를 든 남조선괴뢰군놈들에게 백양나무를 당장 찍으라고 하면서 마구 내몰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나무를 찍지 못하게 막아나서자 미제침략군놈들은 남조선괴뢰군이 가지고있던 도끼를 빼앗아 우리 군인들에게 던졌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군인 한명이 코피가 터졌습니다. 격분한 우리 군인들이 적들이 던진 도끼를 집어서 도로 던졌는데 미제침략군 한놈이 그 도끼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미제침략군놈들은 저들의 군인이 쓰러지자 우리 군인들한테 왁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군인들은 17명의 적들을 상대로 하여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조선사람은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자 거기에 있던 3명의 남조선괴뢰군은 들고뛰였습니다. 결국 4명의 우리 군인들은 14명의 미제침략군놈들과 싸움을 하게 되였는데 싸움과정에 우리 군인들이 적 한놈을 또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놈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적들은 이런 싸움이 벌어질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탄복까지 입고있었으며 촬영기를 사전에 준비하여놓았다가 싸움과정을 모조리 사진찍었습니다. 적들의 책동은 완전히 계획적인 도발이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처럼 《판문점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여놓고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곧 《비상대기령》을 내려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으로 하여금 진지를 차지하고 완전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공동경비구역안에 있는 백양나무를 마구 찍었습니다.

《판문점사건》이 있은후 미국무장관 키신저는 저들의 군인을 죽인 우리 군인을 처벌하고 배상금을 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도발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는데 무엇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며 배상금을 물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판문점사건》에 대하여 자꾸 시비질을 하기때문에 그 진상에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미리 찍어둔 사진들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들에 내면서 우리가 《호전적》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선전을 하였습니다.

판문점이 이처럼 위험한곳이기때문에 나는 선생이 판문점에 가보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사고나 생기지 않겠는가 은근히 걱정되여 우리 일군들에게 판문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임무를 주었습니다.

선생은 비록 위험한곳이라도 용감하게 나가면 일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나는 선생이 지난 기간 파쑈와의 간고한 투쟁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동안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할수 있은것은 언제나 신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죽는 법이 없으며 장수할수 있습니다.

선생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세계평화를 위해 투쟁해나간다면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게 될것입니다.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이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쓴 《조선방문기》를 읽어보았는데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선생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 올 때에는 기일을 넉넉히 잡아가지고와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뿐아니라 좋은 미담들에 대하여서도 취재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세상사람들에게 소개할만한 훌륭한 미담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사람들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며 발전해나가는 참다운 사회주의나라입니다.

선생은 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늘 머리를 쓰고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다 인민을 위한 생각으로 머리를 쓰고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옛날부터 제일 더운 때를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이라는것은 한문자로 세번 엎디여있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때는 날씨가 너무 덥기때문에 일을 하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은 삼복더위때에도 일을 계속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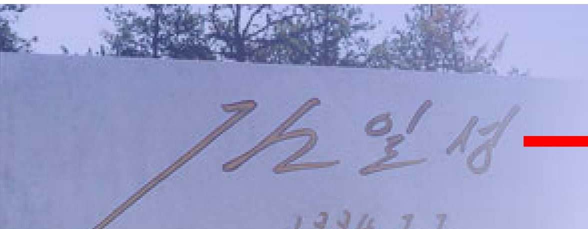
우리는 언제나 일군들이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천하를 얻을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래동안 간고한 혁명투쟁을 해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탄알이 외투섶까지 뚫고 나갔으나 나는 죽지 않았으며 혁명을 계속해왔습니다. 내가 그처럼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오늘까지 혁명투쟁을 해올수 있은것은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다 동지들의 사랑의 덕택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혁명적동지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군합니다.

사랑에는 부모자식사이의 사랑, 부부사이의 사랑, 친우사이의 사랑, 동지사이의 사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지사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생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나는 다음해에 생일 7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부모의 품속에서 산것은 15년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동지의 사랑은 모든 사랑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사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과 두번째로 만나는데 우리 사이에는 벌써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같고 사상이 같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하찮은 존재로가 아니라 뜻을 같



이하는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 매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선생이 우리 나라의 로동교화소에 가보고 조선에서는 사람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개조하고있다고 하면서 매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처벌하는것을 보고 그 나라의 정치제도를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망탕 처벌하는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태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사람을 처벌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반드시 처벌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 한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합니다. 처벌한다고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나는 일군들에게 늘 준비된 공산주의자 몇몇 사람만 데리고 공산주의에로 가자면 래일이라도 당장 갈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잘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군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군대안에 영창이 없습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는 군대안에 영창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군인들이 군사규률을 위반하면 처벌하여 며칠간씩 영창에 넣고있으며 그런 방법으로 군사규률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있지만 군대안에 영창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당신들은 군대안에 영창이 없이 어떻게 군사규률을 유지하는가고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기껏하여 대원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권한밖에 없습니다. 혹시 군사규률을 자주 위반하는 군인이 있다 하여도 주의를 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양하여 고치도록 합니다.

내가 언제인가 인민군대 어느 한 중대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만나 중대안에 규률위반건이 몇건이나 되는가고 물어본 일이 있는데 그들은 2건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규률위반건이란 어떤것들인가고 하니 하나는 한 대원이 군대에 입대하기전에 사랑하던 처녀와 만나기 위하여 몰래 외출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군인이 강냉이밭을 지나다가 강냉이 한이삭을 따서 구워먹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의 말을 듣고 외출하여 처녀를 만나본 병사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병사들의 맏형구실, 맏누이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그 대원을 하루저녁 내보내여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였더라면 그가 몰래 외출하는 일이 없었을것이 아닌가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풋강냉이를 따서 구워먹은것도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주지 못하였기때문에 발생한것이다, 젊은 병사들이 강냉이밭을 보면 강냉이를 한이삭 따서 구워먹을 생각이 왜 나지 않겠는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이라면 마땅히 대원들의 이런 심정을 알고 풋강냉이철에 주변협동농장에 가서 중대군인들이 먹을만큼 풋강냉이를 사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대자체로 부업밭에 강냉이를 심어 대원들이 먹고싶어할 때 따서 삶아주든가 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원들이 무엇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 강냉이를 따겠는가,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에게 부모의 심정, 형의 심정, 동지의 심정이 부족하다,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남의 귀한 자식들을 맡았으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대해주고 자기의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인민군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민군대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줄데 대하여 강조하군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내가 데리고다니는 부대에서는 대원들속에서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격대를 거느리고 북만원정을 할 때였는데 밤에 행군하다가 참외밭을 지나가게 되였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잘 익은 참외냄새가 풍겼습니다. 대원들의 눈길은 자연히 참외밭에 쏠리고 누구나 다 참외를 먹었으면 하는 심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군을 중지시킨 다음 참외밭주인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나는 참외밭주인에게 밭에 있는 참외를 몽땅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참외밭주인은 다 팔면 한 50원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참외밭주인에게 100원을 주고 밭에 있는 참외를 몽땅 사서 대원들이 마음대로 따먹게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대원들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대로 참외밭을 지나가게 하였더라면 혹시 어떤 대원들은 규률을 위반하면서 참외를 따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였으면 결국 내가 대원들이 규률을 위반하도록 조건을 조성하여준것이나 다름이 없을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영창이라는것을 모르고 군대복무를 하지만 군사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생활을 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정치범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며 정치범이 생길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없습니다. 정치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남조선에서 간첩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강도범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소소한 경제범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 교양하면 얼마든지 개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로동교화소에 보내여 교양한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화소를 나온후 일을 잘하기때문에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은 로력영웅이 되여 어느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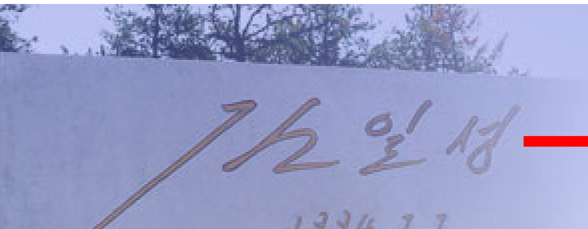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교양을 잘하면 개조할수 있습니다. 교양하여 개조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있던 종교인들도 모두 우리 제도를 지지하여나서도록 교양개조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전에 대동군의 한 목사는 우리 제도를 반대하고 미국을 숭배하면서 미국군대가 쳐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미제침략군놈들이 들어오자 그 목사는 자진하여 마중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제침략군놈들은 부락에 들어와 집을 불태우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쏴죽였으며 저녁이면 젊은 녀자들을 붙들어다 능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 대한 목사의 기대는 허물어지고말았습니다.

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군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목사가 나를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곳 일군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목사가 아주 반동적이라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목사가 무엇때문에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았으나 그 리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목사는 지난 시기 자기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인식을 바로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사죄하였습니다. 그는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이나 중국의 앞잡이로 보였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쏘련이나 중국의 식민지로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반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군대가 쳐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만나보니 그놈들이야말로 천하에 제일 나쁜놈들이였다고 하면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쏘련편도 아니고 중국편도 아니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는 공화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을 다 바쳐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목사를 만나본 다음 우리 일군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일률적으로 친미파로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그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종교인들은 교양개조되여 우리를 지지하여나섰습니다. 강량욱 부주석은 80고령이고 해방전부터 목사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게 하는데서 미국사람들이 《공로》 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지 오래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있은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게 하자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실현되면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이 더 높이 발양될것이며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져 나라의 법도 더 잘 지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리해관계를 크게 가지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범죄의 근원을 없애는데서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남의 돈을 훔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구라파사람들보다 더 잘산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보다 못산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사는 김성락목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갔습니다. 그는 평양숭실중학교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3.1운동 지도자의 한사람입니다. 김성락목사는 해방전에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를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박해를 받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조선인목사들가운데서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는 80고령이 되고보니 더 늙기전에 고향인 평양에 와 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에 대해 자꾸 비방하기때문에 실지 어떤가 하는것을 알아보자고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성락목사는 평양에 와보고 매우 놀라와하였습니다. 일제시기 평양은 빈민굴과 기생이 많은것으로 유명하였으며 형편없이 락후하였습니다. 그러던 평양이 천지개벽하여 지상락원으로 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오기전까지는 자기의 친척들이 지난날 다 잘살았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모두 처형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친척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나 배우, 교원을 하고있었습니다.

그가 조국에 와서 한달가까이 있으면서 보고싶은곳을 다 돌아보고 나를 만나보고싶다고 하기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상락원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북반부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지 알수 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것은 천당에 가서 잘살아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북반부같은 지상락원이 있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천당에 가겠다고 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성락목사를 만나서 조국을 방문한 감상이 어떤가, 미국에 비하여 조국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밤에 다니다가는 강도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기때문에 사람들이 밤에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지하철도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살지만 못사는 사람은 아주 못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을 믿어 천당에 가려고 하였는데 그 천당이 바로 공화국북반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성락목사와 식사를 같이할 때에 그에게 기독교에서는 밥을 먹기전에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는 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드리면서 조국북반부에 지상락원이 이룩되였는데 이 지상락원이 계속 잘 보존되기를 바라며 이처럼 훌륭한 사회제도가 서고 인민들이 잘살게 된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좋은 세상을 마련하여주신 **김일성**주석께서 만수무강하시도록 하여줄것을 하느님께 빈다고 하였습니다.

김성락목사는 이번에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조선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이 조국을 많이 방문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 형편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되였습니다. 벼는 지난해에 비하여 정보당 평균 1톤씩 더 날것이 예견됩니다. 우리는 생산되는 알곡의 절대량을 소비와 축적에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생길 위험은 없지만 식량예비를 많이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를 들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가까운 앞날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며 물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서해안에는 간석지가 많기때문에 그것을 개간하면 많은 땅을 얻을수 있습니다. 화란에서 간석지를 많이 개간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나라보다 간석지개간을 더 헐하게 할수 있습니다. 간석지를 개간하자면 무엇보다도 돌이 많아야 하는데 화란에는 돌이 없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돌을 사오지만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고 돌이 무진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데 썰물때 드러나는 땅에 제방을 쌓고 밀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많은 새땅을 얻을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공업토대가 약할 때에는 간석지를 개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공업토대에 의거하여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석지를 개간해본 경험도 일정하게 가지고있습니다. 간석지를 30만정보 개간하면 벼를 한 200만톤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부터 시작하여 한해에 한 5만정보씩 간석지를 개간하여 1980년대말까지 30만정보의 새땅을 얻자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석지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까지 태천발전소와 남포갑문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벌써 공사에 착수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을 500만톤만 가지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때문에 알곡예비를 많이 조성하고있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있지만 농사를 잘하지 못하기때문에 올해에만도 700만톤의 알곡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부터 식량예비를 가지고있지 않다가는 그때에 가서 남반부 인민들에게 공급할 쌀이 없어서 곤난을 겪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찬양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매개 나라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맑스나 레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쏘련의 경험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쏘련이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쏘련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실현하는것도 쏘련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였기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쏘련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는 쏘련에서 농업집단화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쏘련에서 농업집단화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데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다보니 나라의 공업토대가 약한 조건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과정에 미제국주의자들의 폭격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것이 무참히 파괴되였으며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이나 농촌의 부농들까지도 모두 무산자나 다름없이 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것은 전후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행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자원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협동화는 전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우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올해초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제26차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협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우리 나라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쏘련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협동체에 포함시키지 않은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쏘련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협동체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니 재미도 있고 모든 일이 잘됩니다.

선생이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조선처럼 쏘련의 영향과 쏘련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라파나라들의 당면한 투쟁과업은 쁠럭불가담적인 구라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옳은 견해라고 봅니다. 같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을수 있어도 상하관계는 있을수 없습니다. 매개 나라는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또 호상존중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있은 애급대통령 사다트의 장례식에 우리 나라에서는 부주석이 갔다왔습니다. 나는 사다트를 여러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자주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주성을 철저히 지킬것을 나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아랍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의껏 도와주었기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와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로선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올해에 단마르크사회민주당 부위원장과 오지리사회당 중앙비서를 비롯하여 구라파에서 온 사회당대표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구라파가 자주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나라들이 자주화된 새 세계를 지향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공산당, 로동당들사이에서도 자주성에 기초한 호상 평등과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때에 공산당, 로동당대표들이 많이 왔댔는데 내가 시간상 관계로 그 대표들과 담화는 다 하지 못하였지만 인사는 다 나누었습니다. 공산당대표라고 하여도 자주성을 가진 공산당의 대표인 경우에는 이야기를 나눌 재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눌 재미가 없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만 자주성도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군중적지반이 없이 당원 몇몇 사람들로 조직된 당은 참다운 로동계급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나라 공산당들이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인민대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지 못하고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이 최근 아랍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정세와 관련한 나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란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이란혁명이 어떤 조건에서 승리하였든지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기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란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이 인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수 있는 명백한 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이란국회 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우리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들은 회교를 믿지만 조선에 와보고 조선식으로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오랜 시간 담화하면서 우리의 국가건설경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랍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서 팔레스티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아라파트와 여러차례 담화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와의 담화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팔레스티나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랍지역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과 함께 이 지역에서 쏘미대결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암살된후 아랍지역의 정세가 긴장해졌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유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는데 필요한 근거지를 하나 더 만들려는 목적밑에 아랍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면 세계전쟁의 위험성이 제거될것입니다.

나는 파시즘을 제일 반대합니다. 파시즘을 반대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이며 그것은 곧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생을 세계의 유명한 평화투사로 생각하는데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하면 인류앞에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선생이 다음번에 우리 나라에 와 여름에 몇달 바다가에서 휴식을 하면 몸에도 좋을것이며 나도 시간을 내여 선생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선생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며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세기와 더불어

6. 구국군과 함께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 시련의 해



나는 류하에 머무를 때 리홍과, 리동광의 련계를 위하여 반석지방에 련락원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남만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던 그때 그 두사람도 유격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이 9.18사변후 보민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주구배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했던 무장적위대(일명 타구대, 개잡이대라는 뜻)는 1932년9월에 이르러 반석로농의용군으로 성립되였다. 이 의용군은 모두 탈량투쟁과 주구숙청, 무기탈취, 반일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조선청년들로 구성되어있었다. 1932년 여름부터 리홍광, 리동광은 항일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였다.

그들은 주구숙청투쟁에서 특출한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화제거리를 남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남만지방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례방문이나 하고 인사나 나누자는 것은 아니였다.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자는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과 투쟁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둔 것은 그들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두고 어떤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당면과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립장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두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각지에서 분산적으로 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역상호간의 련계는 어떻게 보장하고 린접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며 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협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였다. 나는 북만의 김책, 최용건, 리학만, 리기동, 허형식과도 그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남만과 북만은 우리의 린접이자 인측이라고 할 수 있었다. 린접과의 협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전반적 발전에 심대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공간이다.

세기와 더불어



반석에 갔던 련락원은 우리가 해룡을 떠나 몽강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부대로 돌아와 리홍광과 리동광이 지방공작을 나가고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곳 지하조직에 나의 편지만 남기였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나는 리홍광, 리동광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몽강에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였다. 몽강에서 우리가 세운 활동의 총적목표는 무장을 해결하는 것과 대렬을 확대하는 것이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치공작과 함께 군사외교활동이 필요하였다.

몽강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서 몇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몽강의 관리들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나의 동창생들이 많았다. 계렬을 따지면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샌님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몽강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현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자위군이라는 데 들어가서 큼직한 벼슬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몽강에는 통화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은 당취오자위군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동창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우리는 몽강에 눌러앉아 자위군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위군과의 사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자위군과 접촉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태반이였다. 같은 조선사람인 량세봉과도 뜻이 맞지않아 담판이 결렬되었는데 자위군과 사업하여 무기를 얻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항차 자위군은 지금 와해상태에 있지 않은가, 어떤 부대에는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다는데 그런 함정에 대장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는 자위군내부에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있는 것은 크게 걱정한지 않아도 된다. 그놈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판별하는 촉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자위군지휘부에 뚫고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 자위군이 와해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작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있다. 그들은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총을 넘겨주거나 내버리는 것보다 항일을 하는 우리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처럼 완고한 우사령과도 뜻이 통하여 합작을 성사시켰는데 자위군이라고 해서 왜 굽혀내지 못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대장동무가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한 것은 천번중 한번이나 있을가 말가 한 우연이다. 만일 그 부대에 류본초선생이 없었더라면 담판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위군부대에 찾아가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콩이야 팥이야 하며 시야비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기질이 아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우리가 류본초선생의 덕을 크게 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연으로만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구국군과의 관계를 풀려고 주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류본초선생도 우리를 도와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동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루루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련락병을 한명 데리고 자위군의 지휘부로 찾아갔다.

자위군의 병영에는 사병들이 꽉차있었고 정문으로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마가 그칠새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우리를 멈춰세우고 산동지방말씨로 ≪무슨 사람들인가?≫하고 물었다. 보초의 검실검실한 눈이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자위군과는 판판 다른 우리의 유격대복장과 모자의 오각별을 유심히 더듬고 있었다.

나는 그 산동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국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안도에서 온 구국군별동대요. 나는 별동대 대장 **김일성**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주오.≫

≪**김일성**? **김일성**별동대면 공산당이 아닌가?≫

얼굴에 마마자국이 뚜렷한 두번째 보초가 입속으로 내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김일성**부대가 공산당부대라는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기억에 새겨두었던 모양이였다.

≪우리는 우사령의 별동대다. 당신 우사령도 모르는가?≫

내가 위엄을 풍기며 이렇게 따지자 마마자욱이 있는 보초는 ≪아, 우사령! 그사람 알고 있소, 그 사람부대 남호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로획했소, 우사령 대단한 사람이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결국은 우사령별동대라는 명함장이 은을 낸셈이었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이 있는 데서는 이 명함장이 맥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군을 할 때에도 반일부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인별동대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었다.

잠시후 산동말을 하던 첫번째 보초가 병영에 들어가서 풍채좋은 사나이를 데라고 나왔다. 그때 당시의 구국군들이란 대체로 옛 장학량군시절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보초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하게도 반소매에 가랭이가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었다. 머리카락도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고 있었다.

≪아, 이거 김성주주임이 아닌가?≫

그것은 이름대신 ≪장꺽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 장가였다. 그가 나를 주임이라고 한 것은 내가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았던 도서주임직을 념두에 둔 것이였다. 장가는 학생시절에도 나를 늘 ≪김주임≫이나 ≪성주주임≫이라고 불러주며 호의적으로 대해왔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한참동안 학창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해수로 계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년만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에게 작별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림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다. 혁명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는 정신을



세기와 더불어

가지고 동분서주하던 때여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 같기도 하였지만 스승들과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도덕적인 빚이 마음속에 연덩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나를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았다.

장가를 만나고보니 이미 지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린듯한 육문중학교시절의 가지가지 정경들과 그 시절에 맛보던 랑만적인 학생기분이 되살아올랐다. 나는 군화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는 병영마당이 아니라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육문중학교 정원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영문을 나서면 북산에도 가닿고 송화강바람도 쏘일수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는 이상야릇한 향수였다.

장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 팔을 허물없이 잡아끼고 이따금씩 큰소리로 웃어대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 김주임의 얼굴이 없는건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냈다.

≪우린 졸업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냥 김주임의 이름을 외웠댔어, 김주임이 학교를 중도반단하지 않았더라면 1등생이 되어 상을 탔을거라구. 혁명이라는게 중학공부를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도 성주를 유혹하던가?≫

나는 웃으면서 유쾌한 통질로 그 말을 받아넘기였다.

≪암, 물론이지. 너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창을 차구 자위군의 장교가 된게 아니겠어.≫

장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뻑거리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건 그래, 9.18전만 해두 우린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속물들이었지. 그런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여났거든.≫

≪그것보라구. 그러게 내가 뭐랬나. 사람은 정치밖에서 살 수 없다구 하지 않던가.≫

≪그땐 그말을 귀등으로만 들었댔단말이야. 아, 시국이 왜 이리도 급전직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만주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살풍경이란 말이야.≫

나는 장가가 시국을 옳게 평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력사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차있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에도 무자비한 곡절을 집어놓았다. 장가자신도 며칠전까지는 베이징 대학에 가서 력사학공부를 해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자 그는 력사학을 전공하려던 학창시절의 꿈을 버리고 분연히 자위군에 입대하였다.

선비중에 선비라는 평판을 들으며 두보의 시행들에 흐르고 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친절하게 풀이해주던 류본초선생이 구국군의 참모장이 되어 초연속을 헤치게 되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이것보라구 김주임, 9.18덕분에 나도 군복을 입은 호걸남아가 되었어.≫

장가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입은 거야 너뿐인가. 나도 군인이 되어 몽강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동창 대 동창으로 뿐 아니라 군인 대 군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마주앉아 대세까지 론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들어진 연분인가.≫

그는 이게 다 일본놈들의 ≪덕≫이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덕≫에 사람들이 좀 총명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몽강의 자위군부대에는 장가외에도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 여러명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립신양명의 길만을 꿈꾸어오던 그들이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장개석을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아라고 조소하는 것을 볼때 만족감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사이의 공동행동문제도 협의하였다. 자위군의 지도부에 있는 동창생들은 우리 부대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어렵지 않게 자위군부대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으며 몽강에 와있는 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와도 만날수 있게 되었다.

어느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받고 자위군지휘성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장소에는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하는 힘찬 호소로 연설의 첫마디로 떼였다.

≪자위군과 반일인민유격대는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반일인민유격대에 공산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적대시하는 것은 항일을 반대하는 일본을 돕는 길이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은 조선인독립군부대를 도와주고 련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그 갈등을 리용하여 량쪽을 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려는 일제의 교활무쌍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자위군은 대도회, 흥창회를 비롯한 민간무장력과 토비들을 설복하여 그들이 무고한 조중인민들을 살해하고 략탈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대소민간무장대들은 모두 항일 구국력량으로 단합되어야 한다.

일부 반일부대들 중에는 일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폐단들이 있다. 투항과 중도반단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때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였다.

자위군지휘관들은 그 연설에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사령부대표는 우리에게 수십자루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우리는 몽강에서 한 뒤달동안 자위군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였으며 끌끌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선전사업도 확대하는 사업도 하였다. 안도를 떠날 때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몽강에 와서는 150명 정도로 불어났다. 김성주가 큰 부대를 무어가지고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강과 그 주변의 청년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마치 주권을 잡은 것처럼 자유롭게 활약하였다.

김정일영도자님은 희세의 실력가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0일



장구한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명인재사들의 일대기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그들 속에는 정치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으며 과학과 문학예술, 군사분야들에서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영도자님처럼 다재다능하고 다문박식하신 비범한 실력가는 없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걸출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실 뿐아니라 특출한 식견을 지닌 뛰어난 저술가,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다.

무릇 위인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라고 한다.

일찌이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영도자님께서는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어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주고 계신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정치철학으로 삼고 애국애족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영도자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이북은 전군, 전민이 영도자의 주위에 일심단결해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도 사소한 탈선도 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올 수 있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전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김정일**영도자님은 명장중의 명장, 장군중의 장군이시다.

그분께서는 기성의 ≪무기만능론≫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보시고 인민군을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총폭탄정신으로 고수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육해공군의 그 어느 군종이나 병종에도 다 정통하신 영도자님께서 인민군을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의 강군으로 키워주셨기에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해 나가고 있다.

문무재덕을 최상의 경지에서 겸비하신 영도자님께서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박식하시다.

세계적인 경제동향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계시는 영도자님께서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신 것은 그분께서 지니신 높은 지성세계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전자정보기술, 생물기술,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개발기술 등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과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개념과 상식으로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폭넓은 식견을 지니시고 환히 꿰뚫고 계신다.

이북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 속에서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고 몇개 나라들밖에는 만들지 못한다는 주사식전자현미경을 제작하고 새로운 산소열법 용광로를 조업하는 괄목할만한 과학기술적 성과들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비범한 실력가이신 영도자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한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뿐이 아니라 농사, 건축, 체육 등 각분야의 세세한 부문에 대해서까지 정통하고 계신다.

그리고 가극, 연극, 영화, 미술, 음악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에서 거대한 민족사적, 세계사적 업적을 이룩하신 예술의 대가로 만사람의 칭송을 받고 계신다.

영도자님의 특출한 실력은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오는 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단 2박 3일동안에 6.15공동선언이라는 자주통일의 대강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영도자님께서 얼마나 걸출한 인품과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남측대표단성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잘알 수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폭넓은 지식과 유머를 토대로 좌중을 휘어잡는 영도자님의 화술은 수준급이상이다. 그분은 남쪽의 정치정세 뿐아니라 심지어 인기있는 가수들의 이름으로부터 유명한 ≪문배술≫의 진맛과 음식맛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 영도자님은 실로 카리스마적 존재를 능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동서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다재다능의 비범한 실력가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겨레는 가까운 앞날에 통일강성대국을 이 땅위에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주체사상토론회

구국의 소리, 주체90(2002)년 4월 24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민중과 청년학생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23일 학생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문화회관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회합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논문 전문을 실은 자료집 500여개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금번 이 소행이야말로 시대와 민의에 부응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해 나온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 것으로 해서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변화발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적 판도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대륙별 연구소, 그리고 각나라들에 수많은 주체사상 연구조직들이 창설되어 주체사상연구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있으며 역사의 전진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의의가 날로 커가고 있음을 뚜렷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막을 수 없는 기류를 따라 오늘 이 땅에서도 주체사상신봉자대열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학생들 속에서 이미 오래 전에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결성하고 주체사상연구 붐을 일으키고 있거나 지성인들과 각계 민중 속에서 주체사상연구 및 보급활동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은 이것을 잘 웅변해준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현 시대를 풍미하는 만민신봉의 철학사상이며 변혁투쟁의 유일무이한 지도이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새것에 민감한 청년학생들과 선각자들이 주체사상토론회를 열고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토론하는 것은 더없이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찰당국이 금번 토론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주체사상토론회 참석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사상연구와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 중세기적 파쑈암흑정치의 재현이고 *****하는 악행중의 악행임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보법에 걸어 주체사상신봉자들을 탄압한다면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것입니다. 현 정권은 구시대적 냉전시대의 유물인 탄압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금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실시한 주체사상토론회 참석자들을 절대로 탄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3일 주체사상 대토론회에 즈음하여

분단이후 최초의 역사적 실험! 주체사상 대토론회

분단이후 처음으로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고, 준비과정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의 정상회담이후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 대신에 동포로서의 이해와 ≪배울 부분은 과감히 배우겠다≫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시대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근 한 달 간의 준비 끝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체사상 토론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주체사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주체사상과 남한 사회에서 주체사상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치열한 격론을 있으리라 예상하였고, 역사적으로 처음있는 토론이기에 관심있는 많은 교수,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 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뜻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40명이 넘는 학계 인사들을 초청하였지만, 주체사상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인사와 단체에도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 수구보수 국회의원인 김용갑 의원에게도, 반통일, 반민족 언론으로 규탄받고 있는 조선일보에도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이런 토론회는 반대의 차원에서 불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토론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토론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교수로 분류되더라도 막상 ≪김용갑 의원≫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도 한나라당에서 최근 송두율 교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뜬금없는 색깔 논쟁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벌였던 그들의 작태를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태도를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강력한 ≪색깔공세≫가 존재하는 사회이고, 이로인해 사상의 자유는 질식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제약당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할 만큼 가공할 만한 적색 공포의 전도사들이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비중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으로는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적화통일≫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위험을 명분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동포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연구를 불온시한다면, 이는 ≪반통일≫로 낙인찍혀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3일 남겨두고 김용갑 의원의 불참 통보

그러나 김용갑 의원은 결국 토론 참가자 중에서 ≪자기 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토론자를 물색해 봤지만, 북한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중에 김용갑 의원과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조감제 기자의 불참 사유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북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온갖 정보를 흘려왔던 그가 ≪잘 모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김용갑 의원은 결국 토론회 개최를 3일 남겨두고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편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일시대에 김용갑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냉전에서 이익을 취해오던 ≪패거리≫들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북 동포의 삶의 근본을 우리가 연구합시다

이북동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한시라도 급한 일이며,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체사상 대토론회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그 근본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진취적인 연구를 시작합시다. 대토론회가 1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후 계속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체사상대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초 청 장



안녕하십니까?

작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통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과정이라 했습니다.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갈라져 살아오면서 커져온 ≪차이≫와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그간 국가보안법에 의해 공론화되지 못한 이북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해보는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의 사상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 역사상 처음이고 학생들의 힘으로 준비하다보니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섭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일정때문에 혹은 사안의 부담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확정되었던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님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토론내용에 차질이 생긴 바, 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회 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연락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통해 또 하나의 조국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귀하(단체)께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토론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계토론

- 일시 : 2001년 4월 23일 월요일 늦은 5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사회자 : 김근식 박사(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토론자 : 강정구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김형찬 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그 외 섭외중
(이상 가나다 순)

- 방식 : 주제별로 한 분이 발제(10분 이내)를 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중들로부터 자유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한다.
예상 시간 3시간 이내.

- 토론 주제 및 발제 :
1.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 - 김형찬 교수 (예정)
2. 주체사상은 어떻게 형성 · 발전되었는가? - 강정구 교수 (확정)
3. 주체사상은 개인 숭배사상인가? -정대연 (확정)
4. 주체사상 금기시되어야 하는가 -최규엽 (예정)

2. 학생토론

- 일시 : 2001년 4월 24일 늦은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28동 대형강의동
- 사회 : 신호철 전 대학신문 편집장,

토론자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장종오
홍익대학교 동연학생회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한양대학교 혹은 동국대학교 (섭외중)
항공대학교 총학생회장 (불참)

- 토론주제
1.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2. 주체사상은 개인 숭배사상인가
3.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전화 880-5223~4)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체사상 토론회 성사되다

금지된 성역깨기…여전히 자유롭지 못해



지난 23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역사적 실험≫이 벌어졌다. 주체사상 대토론회가 그것. ≪주사파≫말 자체가 간첩과 동일시 되는 한국상황에서 가치판단은 고사하고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조차 금기시 된 것이 주체사상이었다.

북을 적이라고 규정한 마당에 그 사상은 적국의 이념이었으니 사상금지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작년 6월 15일 적국의 수괴(?)와 손을 잡고 축배까지 든 이후 ≪적≫에 대한 경계심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단 2박3일동안의 맞잡은 손은 50년동안의 철천지원수를 동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만약 주체사상이 하나의 철학이론으로서 국내에 있는 대중서점에 진열되고 읽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 기자가 예상하건데 동포의 정을 넘어서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100만명의 완벽한 매스게임체조≫에 대해 박수를 치면서도 단순히 ≪기계적세뇌≫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닌 그 무엇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가치판단은 일단 유보하고서라도 말이다.

이러한 무지에서 오는 편견의 50년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알아보고 토론해보자≫라는 것이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주체사상 대토론회≫다.

처음 일정 보도이후부터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토론회는 그 제목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었다. 2번의 일정연기와 토론회 3일전 ≪주체사상≫이란 토론회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오겠다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불참선언, 역으로 김용갑의원의 참여만으로 나오기를 꺼렸던 학자들. 더군다나 사회자 마저도 바뀌었다. 원래 사회자였던 아태평화재단측의 김근식씨는 학생회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정치적이유로 참여하지 말라≫는 이유로 못나오게 됐다.

≪송두율 교수 논쟁에서도 보이듯이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카시적 색깔공세는 여전하다. ≪존재≫자체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할 만큼 가공할 만한 적생공포의 전도사가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는 그간의 어려웠던 속내를 토로했다.

어찌됐던, 대토론회는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김창수 씨가 사회를 맡고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김형찬교수,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최규엽씨가 발제 및 토론을 하고, 30여분정도 방청석과의 질의응답으로 성사가 됐다.

토론회 순서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강정구 교수가 ≪주체사상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가≫, 김형찬 교수가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친 영향≫, 최규엽씨가 ≪주체사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정대연 씨가 ≪주체사상은 개인숭배 사상인가≫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을 관통하는 ≪수령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정대연씨의 불참은 실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상숭배?≫나 ≪과연 주체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인가?≫같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어서 토론회의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3시간 30분동안의 토론회에 대해 사회를 맡았던 김창수씨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획득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주체사상이란 토론회가 진행됐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 이번 토론회는 주체사상 그 자체보다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첫 회인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던 김형찬 교수는 ≪민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대학안에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한 주최측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이민규(기계항공공학부.97)군은 ≪현재의 통일흐름에서 북한을 제대로 알기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간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좀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성사가 된 자체만으로도 성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청객중 한명은 ≪지금이 공안정국이었으면 방청객들까지 구속됐을 것이다.≫며≪지금 시대가 통일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많은 분명한 것 같다≫는 말로 토론회 자체에 의의를 두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에는 학생운동 관계자들이 모여 2차 주체사상 토론회를 연다



박정미 기자

©2001 유뉴스 4월 24일

≪민족고대≫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1. 제국주의의 학살과 수탈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다한 제국주의들이 이 땅을 거쳐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살과 수탈, 착취와 억압을 그치지 않았으며 민중들의 피눈물과 그에 맞선 항전 역시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의 역사는 침략과 항전으로 거듭된 역사였습니다.

20세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세대가 두 개 제국주의에 맞서야 했고 민족전체가 20세기 최대의 전쟁에 두 번이나 휘말려야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예노동과 정치탄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혼이 조국강토와 이역만리에서 떠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빼기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민족의 재부로 남았을 것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피눈물의 분단까지도 덧씌워 졌으며 분단을 이유로 예속도 독재도 모두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지나간 역사로 추억하기만 한다면야 참을 만 하지만 제국의 그늘은 아직도 민족의 머리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는 철책으로 양단되어 있고 말만 재래식인 최신무기들에, 핵우산에, 이제는 자기나라 방어를 위해 이 나라를 미사일로 뒤덮겠다고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다 구조조정이다 하며 자동차도, 전기도, 은행도, 가진 것은 다 내놓으라는 등쌀에 식민경제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이고 빼앗아야 그들은 만족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국토와 민족이 갈려져 대결을 강요받고 그것을 이유로 외세의 개입이 정당화되어온 분단과 예속의 역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맞잡은 뜨거운 손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칠천만 겨레 전체의 환호와 눈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끊어진 허리를 잇고 실종된 민족적 실체를 회복해서 우리민족끼리 새세기를 열어야 합니다. 영광된 민족의 미래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2.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동포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그 과정의 눈물겨운 사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화해와 단합의 전제는 이해와 공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작하는데서 차분한 대화가 시작되고 미처 몰랐던 인식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 새로운 안목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위적 대결을 반세기나 강요받아온 우리들로서는 동포들의 결단을 고집으로 헌신을 미련함으로 봐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아와 빈곤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것에 대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뿌렸던 피눈물과 그 사연에 대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지켜온 것은 제국주의의 패권에 맞선 정치와 경제의 자주권이며 자신들의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역사의 길에서 스스로 선택했던 것을 부득불 버려야 한다고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내 갈길 가겠다는 그들을 두고 고집불통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에서 희생을 감내한 일을 두고서도 따스한 동포의 인정 한번 제대로 보태지 못했음을 아쉬워 할 일이지 미련하다고 타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없는지, 그 결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열정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가둬 왔던 분단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자주와 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3. 주체사상을 모르고서 북한사회를 알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체사상을 모르고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체제와 그것을 이끌어 가는 이념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신기한 것들이 있다더라는 풍물기행 수준일 뿐입니다.

굶주림을 견디고서라도 고수하는 자주노선도, 전체와 개인이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다는 집단주의도, 집단주의의 핵이라는 지도자와 당 중심의 단결도 모두 주체사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들이 걸어 온 반세기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포와 손맞잡고 함께 가야할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는 주체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이를 위한 진지한 탐구와 사색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가는 길에 설 동반자를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1년 5월 7일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34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주체사상과 이북사회≫ 토론회 성황리에 진행

송두율 교수, 인터넷 화상 토론 통해 ≪분단시대≫ 극복 역설



정부당국의 입국 거부로 인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상토론≫으로 관심을 끌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지은) 주최의 통일대토론회 ≪주체사상과 이북사회≫가 성황리에 치뤄졌다.

13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우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400여명이 참가해 진지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답방 성사의 분위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통일은 1회성 이벤트나 보기 좋은 행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또한 ≪아직도 토론회와 관련해 송두율 교수에 대한 협박과 학내사찰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승교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이북사회 자주노선의 의미와 그 배경≫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이북의 주체사상은 대외적 자주노선과 대내적 주체노선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대외적 자주노선의 맹아는 193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교수는 또한 ≪이북의 대내적 주체노선 해방정국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추구되었으며, 1955년부터 본격화되어 1958년경에 정착되었으며, 1960년대에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와 투쟁하고 비동맹외교활동을 벌이는 등 대외적 자주노선을 실현해 나갔다≫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는 특히 ≪1964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경제토론회에 대해 ≪프라우다≫가 비난하자, ≪로동신문≫이 사설에서 소련측의 주장을 ≪제국주의자의 사고방식≫이라고 비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북의 자주노선이 일회적이거나 선언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왔고,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도 우리식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안재구 선생(전 숙명여대 수학과 교수)는 ≪이북사회 집단주의의 의미와 그 실제표현≫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북의 형제들은 제국주의의 반세기에 걸친 봉쇄를 뚫고 자립경제를 이루어 나가며, 1994년 이후의 전쟁책동과 혹독한 자연재해를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체사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구 선생은 발제에서 ≪이북의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자주적 활동으로써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하며, 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 다시 말해 사상의식을 가진 근로민중의 활동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구 선생은 ≪이북의 집단주의는 역사의 주체를 수령, 당, 민중의 통일체로 보며, 이 때 수령은 주체의 내적 구조로 수령, 당, 민중으로 구성된 주체의 중추이고, 당은 골간이며 민중은 지체로서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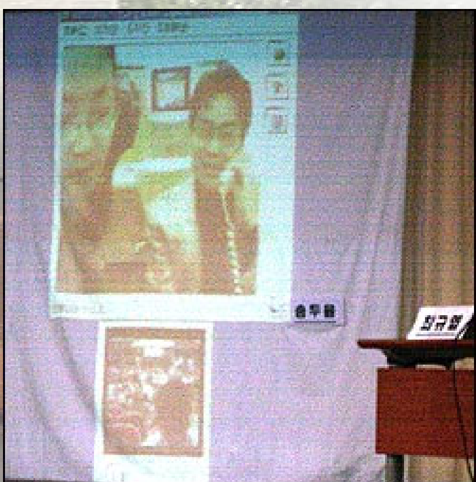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순경 박사(전 목원대 신학과 교수, 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고문)는 ≪주체사상을 금기했던 냉전 분단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여 ≪냉전분단 체제의 굴레로 맑스주의, 맑스레닌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은 남한에서 절대적 금기로 탄압되어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제대



로 이뤄지지 못했고, 자본주의적 세계지배 세력들의 조종의 틀 속에서 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순경 박사는 발제에서 ≪남한의 관변, 보수 기득권세력과 보수 그리스도교 반공주의 대변가측에서는 주체사상을 **김일성** 일당의 독재권과 우상화를 위한 선전 이데올로기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주사배격은 북한의 사회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고 동시에 민족근현대사에서 민족과 사회해방을 위한 투쟁사의 의의 자체를 상실해 버릴 뿐 아니라, 미국의 비롯한 세계의 지배세력들에게 민족의 종속상태를 영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경 박사는 이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운명과 세계사물과 사회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이라며 ≪주사에서 얘기하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자연적 산물이 아닌 ≪사회역사적 산물≫이며 물질적 차원에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유한 정신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순경 박사의 발제가 끝난 뒤 인터넷 화상토론 형식을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턴 대학)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송두율 교수는 ≪분단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남북사회의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남북한의 분단상태를 표현하는 ≪분단구조≫라는 말은 분단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려는 관성에 인식관심을 쏟고 있으며, 체제이론에서 ≪분단체제≫가 ≪환경≫에 조응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검토해 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두율 교수는 이어 ≪≪구조≫나 ≪체제≫로 분단을 바로보는 태도보다는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직선적인 지향성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분단시대≫로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는 게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율 교수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선 통일문제를 지금까지처럼 남북을 산술적으로 단순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접합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북이 주장해온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의 낮은 단계≫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나, 균형잡힌 하나의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합의는 남북이 각각 지니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 우선 서로 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집합론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특히 ≪민족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남과 북이 서로를 ≪자기안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가는 일≫이라며,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충격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속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으로 토론을 마친 송두율 교수는 ≪직접 만나 토론할 때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가 직접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두의 권투를 빈다≫고 말했고, 토론장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민우 기자 tong121@hanmail.net
ⓒ 2001 OhmyNews 2001/06/14

대학생들, 삼복더위에도 북한바로알기 열기 거세



대학생들의 북한바로알기 학습열기가 삼복 더위를 이기고 있다.

29일 방학중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통일연대≫주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학생 여름 통일학교(통일학교)≫가 성남 경원대학교 학생회관 두 강의실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높은 반에서 김남식(경실련 통일협회)고문은 오전 오후에 각각 ≪북한사상의 이해≫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다.

김남식고문은 ≪북한사상의 이해≫ 강의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오해와 편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체사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제가 나와 새롭게 정리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 예로 ≪주체사상은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혁명론, 의식론 등으로 계속 풍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남식고문은 최근 방미여부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황장엽씨에 대해 ≪계속 변하고 풍부화되는 주체사상의 특징으로 인해 주체사상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로 될 수 없다≫면서,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황씨는 사실 주체사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황장엽씨의 ≪주체사상 대부≫설을 일축했다.

또한 김남식고문은 오후 강의 말미에서 최근 학생들의 신(新)북한 바로알기 운동과 관련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적 논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사회를 먼저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반은 오전에는 박우형(민주노동당)씨가 ≪진보사상의 형성과 발전≫을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김영욱(한국노동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강의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대연(전국연합)정책위원장의 ≪북한의 식량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북한사회 이해≫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30일에는 오전에 안영민(월간 ≪민족21≫)기자의 ≪북한사회에서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와 민경우(범민련 남측본부)정책위원장의 ≪현정세와 반미자주화운동의 기조와 방향에 대하여≫ 강의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대학생 통일연대의 이번 통일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게≪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눠 진행한 점 ◎강의후 시험을 보는 점 ◎≪도전 골든벨 체육대회≫를 여는 점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사용해 참신성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천수(대학생 통일연대)대표는 이번 통일학교 개설 취지에 대해 ≪작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열린 통일정세하에서 아직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분단상태에서 분단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천수대표는 ◎북한의 지도사상에 대한 이해 ◎분단의 원인과 분단 이후 역사에 대한 이해 ◎북한의 외교노선과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주민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이해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천결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내비쳤다.

또한 최천수대표는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자 했는데, 이를 강의할 강사가 절대 부족함을 느낀 점이 준비상의 어려움이자 아쉬움≫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동부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통일학교는 작년 여름방학, 올해초 겨울방학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행사이다.



이계환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29

통일연세 통일강연회 ≪통일 제1막 1장≫

이제는 북녘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



6.15공동선언 1주년과 8.15대축전 행사기간을 맞아 각계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학생들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민족21이 공동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신(新)북녘바로알기 통일 제1막 1장≫을 주최했다. 행사 이틀째인 1일 오후 3시 ≪북녘 사회주의 이해(수령제를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김남식(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이 강의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북한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 사실들이 많았음을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김남식 고문의 강의 후 안재구(통일운동가) 씨의 ≪그들에게 주체사상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는 북녘사진전, 북한 물품판매, 관련서적 할인판매 등이 이뤄져 이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정규(연세대 총학생회) 회장은 ≪작년 6.15공동선언에 의해 매년 어렵게 진행됐던 8.15행사가 남북공동행사로 됐고, 그로 인해 전민족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하에 이제는 북녘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로 ≪이전에는 북한의 생활 문화 등을 주로 알아갔다면 이제는 북한 사회의 요체인 지도자, 사상, 당에 대한 내용을 알려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첫날 강좌부터 들었다는 윤현정(연세대 재료공학부, 2학년) 학생은 ≪어제, 오늘 새로운 점을 많이 알았다≫며 ≪특히, 질문 과정에서 느낀 점은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 때 뭔가를 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생각이 통일에 대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다≫며 남은 강좌에도 계속 참여할 뜻을 밝혔다.

중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 황금주(경기도 이천 양정여중, 2학년) 학생은 지난 1월 인터넷의 역사카페에 가입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 강좌도 듣게 됐다고 말했다. 황금주 학생은 이번 강좌가 역사카페와 동국대 북한학과 사이트 그리고 북한관련 서적 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의 틀을 많이 바뀌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황 학생은 ≪작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사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역사 교과서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지금의 모습도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했다.

끝으로 황금주 학생은 정부나 교육계가 북한이나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북녘바로알기 행사에는 4일간에 걸쳐 총 7회의 강의와 통일대토론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저녁에는 통일영화제와 통일풍물학교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8월 4일에는 통일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화해분위기에 맞춰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02



통일 제1막 1장 - 통일대토론회

연세대 총학생회 주최 ≪신 북녘바로알기 통일 제1막 1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인 ≪통일대토론회≫가 3일 저녁 6시 연세대 제2인문관에서 열렸다.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방향≫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교수는 ≪민족자주화와 주한미군≫이라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 민족자주화의 역사와 현주소를 비교 검토하였다.

강정구교수는 북한의 민족자주화의 역사를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대내적 주체노선≫ △중.소 등 사회주의 강대국의 패권에 맞선 ≪대외적 자주노선≫ △해방공간,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반외세자주화투쟁≫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강정구교수는 남한의 민족자주화의 현주소와 관련,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에 있다며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주제에서 안재구(통일운동가)씨는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담장을 걷어내자≫는 발제문을 통해, 그 담장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과 국내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했다.

안재구씨는 반통일세력이 쌓아놓은 분단의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통일세력이 퍼뜨려 놓은 반북의 허위를 벗겨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북 바로 알리기 운동≫이며 △≫반통일세력이 주장하는 이북의 통일방안이 이남을 적화통일하는 것이라는 허위를 벗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남북 통일방안≫에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제한 김남식(통일뉴스)상임고문은 남한의 경우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서 각각 제시된 연합제안을 비교했으며 그리고 북한에서의 연방제안의 제시 및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김남식상임고문은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연방제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통일방안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며 △남측의 연합제안에서의 남북연합은 다음 단계인 연방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서 ≪연방제≫를 수용하고 있어, 이는 북측연방제안과의 형태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남식상임고문은 두 가지 방안의 차이점에 대해 △북측의 연방제안은 처음부터 1민족 1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남측의 연합제안은 1민족 2국가로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북측의 연방제안은 통일에 있어 제도통일과 민족통일을 구분하고, 제도통일은 훗날에 미루고 우선 민족통일을 하자는 것이며 그러자면 남북의 제도상의 차이를 초월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기구(통일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에 비해, 남측의 연합제안은 북측과는 달리 제도상의 공통성을 전제로 한 연방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남식상임고문은 남북의 지도자가 합의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의 길을 가야하는데 특히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사실상 ≪연방제≫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남북한은 각각의 통일방안에 있어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입각해 통일문제를 푼다면, 이는 독일식의 제도상의 흡수통일이나 베트남식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제3의 방식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서 김귀옥(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상임연구원은 ≪이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관점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문제를 민족 중심 사고로 봐야 하며 △사대주의와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북한 핵문제나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와의 교환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이중잣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광용(한양대학교 아태지역센터)연구교수는 북한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로 말하게 하라≫는 접근 방식인 ≪내재론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민족공동 이익≫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교수는 그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1990년대 중반 ≪북한붕괴론≫의 허구성을 지적한 뒤, ≪통일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통일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통일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하며 정치적 상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있은 통일대토론회는 지난 달 말일부터 4일간 진행된 ≪신북녘바로알기 통일 제1막 1장≫의 마지막 순서로 그간 강연자들이 모두 통일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해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연 외에 △도서할인전 △사진으로 보는 북녘사람들 △북녘 바로알기 선전거리 △북녘 물품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부대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방학중이고 또 휴가때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학우들이 도와주고 참여해준게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계환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04

8월 8일 경북대에서 주체사상 대토론회



8월 8일 민족경북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민족 경북대는 8월 8일 주체사상 토론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반세기 한 많은 세월을 딛고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시기, 민족 복현에서부터 전민족의 통일대행진에 힘찬 날개를 달고자 합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노동자, 농민, 가수, 미용사, 기업가, 관광객...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전선 너머 북녘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북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6.15공동선언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는 통일방안의 문제에서부터, 아직도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북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체사상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복현의 ≪주체사상대토론회≫ 에서부터 우리민족이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합니다.

★ 토론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조발제≫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김남식 선생님, 경실련 통일협회고문, 통일뉴스 상임고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안재구 선생님,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강정구 교수님,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민화협공동의장)

≪주제토론≫
주체사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금기와 편견을 넘어 이북을 제대로 바라보자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

사회자 : 이대영 선생님(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경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 : 서옥렬 선생님(비전향 장기수, 통일광장 회원)
김대용 선생님(상신브레이크 노조위원장, 금속연맹 대구지부장)

★ 시간과 장소 : 8월 8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세미나실

★ 주체사상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체사상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와 ≪6.15공동선언과 우리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
해방이후 통일운동의 역사와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제
주체사상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

강연자 : 안재구 선생님
시 간 : 8월 6일 오후 3시
장 소 : 사회대 132호

2001년 8월 3일
민족경북대 청년기백 33대 자주총학생회

≪북한 이해는 ≪주체사상≫ 이해부터≫

8일, 경북대 총학생회 주최 ≪주체사상토론회≫ 개최



남과 북의 첨예한 대치 상태에서 ≪주체사상≫은 공개적 논의장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온한≫ 사상이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불어닥친 남과 북 화해의 기류를 타고 주체사상은 ≪금기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일 경북대학교(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전자계산소 세미나실에서는 ≪주체사상토론회≫가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기를 넘어 민족을 이해하자≫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과 6월에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열린 주체사상 관련 토론회에 이어 대학 내에서 올해 들어 세번째로 개최된 것.

경북대 김정희 부총학생회장은 이날 열린 주체사상토론회에 대해 ≪지금까지 대학 내에서 이북바로알기 운동 등을 통해 북한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긴 했지만, 이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단편적일 뿐이었다≫고 전제하고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중심사상인 주체사상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날 5시간 가량의 장시간에 걸쳐 열린 토론회는 발제자들이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일성에 의해 창시,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 되는 과정≫



이날 첫 번째 기조 발제에 나선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고문은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은 1930년 6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에 의해 제시됐다≫고 밝히고 ≪그 후 항일 빨치산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이 현실화되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주체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화 및 정식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주체사상은 창시와 함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심화, 완성됐으며, 김 위원장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막스-레닌주의와 철학의 근본문제에서 구별되는 주체사상≫

김고문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구(전 경북대 교수) 씨는 ≪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통일과 화합도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안 씨는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인간의 운명문제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물질-존재가 일차적이고 의식-사유가 부차적이라는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내세웠던 막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또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객관세계(인간의 환경과 여건)와 인간 자신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대내적 주체성과 대외적 자주성에 영향≫

≪이북사회에 주체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기조 발제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가 맡았다.

강 교수는 ≪북한 정권의 주체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주체사상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이러한 북한의 주체성을 ≪대내적 주체성≫과 ≪대외적 자주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대내적 주체성은 막스-레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점, 대외적 자주성은 북한에서 그 동안 벌여온 반제국주의자주화투쟁,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대국과의 별도의 독자노선 투쟁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는 비전향장기수 서옥렬 씨와 금속연맹 김대용 대구지부장이 ≪주체사상은 왜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금기와 편견을 넘어 이북을 제대로 보자≫등을 중심으로 주제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오후 8시쯤 끝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 개최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학교 당국에 개최 불허를 요구하면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이번 토론회의 성사만으로 주체사상이 ≪금기의 벽≫을 넘어 ≪토론의 양지≫로 들어섰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반면, 공안당국의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공안당국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과정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전과정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2.knu.ac.kr/~chonghak/)과 진보넷 (www.jinbo.net) 등을 통해 동영상과 토론 발언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승욱 기자 baebsae@lycos.co.kr
ⓒ 2001 OhmyNews 2001/08/09

주체사상 학술토론회 힘있게 성사하였습니다



주관하였던 민족고대 서창에서는

시험기간이고 선거 시기이기도 하여서 부담을 느끼는 과정이 있었지만 학우들에게 묻고 그 힘으로 행사를 진행하자는 계획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스티커 설문조사, 그리고 설문지를 들고 학우들을 만나갔습니다.

그과정에서 이북사회에 대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단연 주체사상이 1위로 나타났었고, 듣고 싶은 강연에서도 단연 1위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만약 주체사상 토론회가 우리 학교에서 열린다면?≫ 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우들은 ≪적극찬성과 긍정적이다≫로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내었습니다.

학우들의 정서와 요구가 어떠함을 확연히 눈으로 보게 된 일꾼들은 자신있게 사업을 준비해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당일 진행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려고 했던 주체사상 학술토론회는 준비가 조금 덜 되었던 관계로 30분 늦게 2시 30분 시작을 하였습니다.

고대서창 인문대 학생회장님의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학교로 환영인사를 하고 사회자의 시작으로 바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주제문 발제자 분들이 모두 오셔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김남식 선생님, 안재구 선생님, 강정구 교수님, 최규엽 위원장님이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주제문 1.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그 구성체계 -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선생님

주제문 2.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안재구(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 선생님

주제문 3. 통일과 국가보안법 -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선생님

주제문 4.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 위원장, 금천지구당 위원장)선생님

이렇게 발제를 듣고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이북사회, 주체사상에 대해 잘 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았 던 것은 무엇이 있었으며 통일지향적인 이북사회 인식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패널로는

서경원 (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선생님, 김태건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통일위원)선생님, 정수용(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 연합 의장, 충남 도연맹 의장) 의장님이 패널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서경원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그간 잘못 바라보았던 **김일성**주석에 대해 재미있고 대중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대중들의 폭소를 자아내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에 다녀 온 뒤 예전의 안기부에서 얼마나 악랄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거짓선전을 일삼았는지에 대해 통렬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태건 선생님은 올해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하고 오신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그 성과물인 남북 노동자 통노회를 중심으로 더욱 가열차게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벌여나가겠다는 다부진 결의의 말씀으로 끝마침을 해 주셨습니다.

정수용 의장님 역시 이번 단오제를 맞이하며 남북 농민대회에 참석하시면 들었던 생각들과 IMF속에서 신음하는 한국사회의 실태, 그리고 고난의 행군시기 최고 대표자와 당, 그리고 인민이 단결하여 만난을 극복했던 내조국 절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들을 이야기 하면서 분단의 현실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앞장서서 통일을 일궈나가야 한다면서 말씀을 끝마쳐 주셨습니다.

아쉬웠던 점

모두들 혼자서도 능히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쟁쟁한 분들이라서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연이 되면서 질의응답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행사가 끝나고 마련한 조촐한 간담회의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더욱 시간을 두고 내실있게 가져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발제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던 분이나 그 자리에 귀기울여 듣는 학생들과 각단체 분들도 그 점을 아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더욱 많은 학우들이 참가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60~80여명의 학생, 단체분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선전의식화와 조직화로 많은 학우들과 단체분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주체사상 학술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행사 준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 대중들의 인식정도를 급격히 높여낼 수 있는 참 유력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우선 행사 기획을 탄탄히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부터는 지속적인 섭외를 요청하는 연락작업, 섭외 후에는 발제, 혹은 토론과정에서 담을 내용에 대한 연락작업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고 행사장소로 선정된 곳에서는 학우들을 상대로한 관심과 호응을 높여내면서 대중적인 선전을 하고 특성에 맞는 과, 소모임,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조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처음 학우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지부터 묻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요.

또한 언론에 연락하고, 초청사업을 하면 주체사상 학술토론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큰 성과는

처음에는 시기상, 내용상 우려를 많이 했던 단체분들이 막상 행사를 끝마치고 많은 힘과 신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같이 하자는 등의 참으로 힘찬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참으로 힘받는 과정이었습니다.

향후 지역 차원으로 더욱 알차고 내용 있고 대중적으로 주체사상과 이북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바로 아는 다종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이 함께 다뤄보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려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제 북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 하는 속에서 주체사상과 이북사회등을 솔직하게 느낀 바를 대중들에게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시도라서 노동자분이나 농민분들이 자기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부족했지만 이번의 성과로 향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련된 방법으로 단위에서 녹여나갈 수있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 학교차원에서, 단대차원에서, 과차원에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주체사상, 또는 이북사회 여러방면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과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토론회 총화를 마칠까 합니다.

자료집에 수록되었던 발제문과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강정구 교수, ≪금기시된 학문적 주제를 파헤친 게 국가보안법과 충돌≫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열린 ≪주체사상 학술토론회≫에서



≪이제까지 금기시된 학문적 주제를 파헤친 게 국가보안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일 오후 충청남도 조치원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통일위원회와 제8기 충청총련이 공동주최한 ≪주체사상 학술토론회≫에서, 지난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공동행사에서의 ≪만경대 필화사건≫ 이후 다시 강연장에 선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현행법과의 관계를 이같이 압축했다.

강정구 교수는 검찰 공소장의 공소이유가 90% 이상이 그전의 저술과 강연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지 ≪만경대 필화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공안당국은 학문적 업적이 국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학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며 ≪나는 이를 알면서 왜 학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정구 교수는 자신은 현대사전문가, 북한전문가, 통일이론가로서의 학문정체성을 갖고 민족학문과 비판학문을 학문적 좌표로 삼아왔다면서 ≪올바른 민족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학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올바른 비판학문을 하게되면 민족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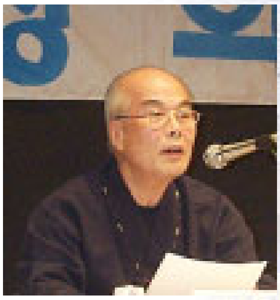
따라서 강정구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대상이 정권의 정통성, 한국전쟁, 주한미군, 주체사상, 북한사회, 통일방안 등 한국사회에서는 성역화된 것이었고 ≪성역 허물기 작업≫으로서 이들 문제들을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정구 교수는 6.15 통일시대 이후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면서, 이러한 성역화가 제대로 허물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민족화해와 평화 및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성역 허물기≫는 ≪저의 학문정체성이 요구하는 논리적 귀결이고 동시에 우리의 민족사,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성취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성역 허물기 작업의 하나로서 ≪주한미군의 반평화성과 반 통일성≫을 주장하자 이는 주한미군 철수로 돼 공안당국에 의해 반미자주화론으로 매도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정구 교수는 ≪만경대 필화사건≫이 없었더라도 자신은 공안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문제시될 소지가 있었으며, 이번 ≪만경대 정신≫ 건은 그 빌미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학술토론회에는 이외에도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주체사상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그 구성체계≫, 안재구(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 통일운동가의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의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발제가 있었다.



김남식 상임고문은 ≪북한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남한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한사회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며, 안재구 통일운동가는 ≪북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주체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규엽 위원장은 지난 ≪8.15 민족통일대축전≫ 때 남한 언론에 의해 방북단의 활동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남쪽의 언론보도 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공식 입장도 함께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널로 나선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988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났던 상황과 과정을 설명했으며, 정수용(민주주의민족통일 충남대전연합) 의장과 김태곤(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통일위원회) 위원은 각각 농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지향적인 이북사회 인식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강연회에는 고려대 서창캠퍼스 북한학과 학생 150명 정도가 수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최측과 북한학과 교수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계환 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3

미국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는데 관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엔 ≪미국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는데 관해 본방송국 윤정원씨와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미국 부시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이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6.15공동선언을 무엇때문에 반대하며 그처럼 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윤정원 : 미국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고 21세기 통일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지배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해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건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전략인데요. 그런데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공동선언이 이행이 돼서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땅에서 손을 떼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잃게 되잖아요. 또 이땅을 강점하고 지배하려던 야망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애당초 6.15공동선언자체를 반대했고 그 이행에 모든 힘을 다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사회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그건 여러 측면에서 발가놓을수 있습니다. 우선 부시행정부는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면 우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거해야하죠. 그래서 우리 겨레는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해 그야말로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죠. 그런데 부시 미국행정부는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주장하며 영구강점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파월 미국무장관은 지난번에 방한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부시대통령도 누차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들은 신군사정책에 따라 유럽주둔미군은 적지않게 철수시키면서도 주한미군은 전략상 한명도 감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늘리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머리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장장비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자 : 부시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기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에 대해 시시콜콜 장악, 시비하면서 소일시하는가 하면 중요한 교류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저들의 조인을 받을 것을 당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해 상호주의를 해야한다느니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말은 먼저 미국 당국자들이 했습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이 잘되면 북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래서 결국 국력이 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북을 쉽게 무너뜨릴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은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이북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까지 시비하면서 검증해야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주한미대사관에 그 내용과 목록을 일일이 먼저 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대북전기공급문제가 일정에 올랐다가 무산된 것도 바로 미국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그거야 이북에 전기를 주면은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미국이 **** 2003년까지의 200만킬로와트 원자력발전소를 이북에 건설해주게 된 것도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전혀 원전건설을 진척시키지 않는 이유도 북에서 여러 가지의 극심한 부족난을 겪게 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도들이니 미국이 대북송전을 허용할리 없죠.

윤정원 :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 부시행정부는 미사일위협, 상용무기위협 등의 모략적인 북의 위협설을 내돌리면서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시시 침략무력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망라한 69만명으로 새로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국본토의 해병기동군을 비롯한 각종 함정 160여척과 ≪에프18≫전폭기 등 1,600여대의 비행기를 한반도전역에 적극 들이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에 ≪비1≫폭격기를 새로 교체했고 야간특수작전에 들이밀 ≪엠에이취-47이≫헬기를 끌어들이고 요격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 두척을 우리 나라 동해에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예요. 미국 호전광들은 한국과 그 주변에서 이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국군과 함께 ≪연합전시지원연습≫, ≪연합특별훈련≫, 대규모≪해상기동훈련≫, ≪연합지대전훈련≫,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 등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였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테러를 반대한다는 구실로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을 자행하면서 한반도 주변무력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는 채 하고는 그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로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얼마전에는 1개 대대 항공무력까지 이땅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북의 군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구실로 이북에 대한 공중정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은 지난 한달동안 140여차에 걸쳐 이북지역을 공중정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을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같이 미국이 고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기 때문에 모처럼 마련되고 진행되던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일시 중단되게 됐죠.

윤정원 : 이산가족교환방문과 태권도시범단교환방문도 일시 연기되게 됐는데 이것도 다 미국이 그처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인거죠. 미국 부시행정부는 저들이 이렇게 해서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면서도 도리어 이북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초반에는 부시가 직접 기자들앞에 나서서 이북의 최고지도부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느니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인물이라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아서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웅변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서 미국의 반통일책동, 6.15공동선언이행방해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되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일～4일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이 상봉시간을 며칠 앞두고 연기돼서 만남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산가족의 상봉이 무산되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재야인사 김철호씨의 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속담에 불을 지른자 불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건 아마 요즘 이산가족방문교환문제와 관련해 관계당국자들이 놀아나는 행태를 두고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알려진 것처럼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진행되어 오던 남북이산가족방문교환사업이 일시 예측할수 없는 중단상태에 빠졌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자들은 저들의 잘못된 처사는 당관위에 숨겨두고 방문단교환의 대방인 북에 그 책임을 넘겨씌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문제도 원만히 풀수 없다.

그들은 이번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이 마치 북의 무성의로, 말하자면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중태에 빠진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나라의 분열로 하여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 하겠다. 이같은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내놓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왔다고 본다. 3차에 걸치는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이 있은 것도 그렇고 2차의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사업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것도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더욱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이 지난번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한시바삐 덜어주려는 숭고한 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고 본다. 사람들은 이같은 조치를 지켜보면서 또 한차례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실현되어 그들의 아픔이 덜어질 것이라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태는 어떻게 벌어졌는가. 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날을 앞두고 군과 경찰당국은 갑작스레 전군, 전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했다. 더욱이 엄중하게도 온 겨레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방문단교환사업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전력공백을 메군다는 구실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전투기를 끌어들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인도주의사업에 난관을 조성했다. 이게 도대체 이산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사람들의 입장과 자세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있은 공격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처한다는건데 수백만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북을 염두해 둔 음흉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것도 그렇지만 만사람의 기대속에 벌어지게 될 이산가족들의 상봉분위기를 어데로 끌고 가자는 것인가.

하늘에는 전투기가 쉼없이 날고 땅에는 대포와 미사일들이 숲을 이룬 살벌한 곳에 방문단성원들이 탄 여객기가 어떻게 남쪽하늘을 날며 땅을 짚고 다닐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은 고사하고 남북대화마저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없다. 일은 저들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온당치 못한 행위이다.

이산가족상봉을 발기하고 그를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는 북을 걸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봉을 가로막은 당사자가 감히 무엇을 잘했다고 입방아질이며 더욱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말할 체면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현실은 누가 인도주의적 문제에 진실로 관심이 있고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안전한 방문교환이 이루어지자면 뭐니뭐니해도 그 여건부터 조성돼야 한다. 그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군, 전경찰에 내린 비상경계조치를 철회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관계당국자들의 앞으로의 행동거지를 지켜볼 것이다.

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로 가자면 북을 향해 총포를 겨누며 자극해서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갈수 있겠습니까.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침체되게 된 건 전적으로 이남 관계당국이 우리 민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외적 사건을 구실로 해서 남북관계를 대결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 할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 어느때든 민중의 심판을 받고야 말겁니다.



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31일~11월 2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각계층 민중은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확신에 찬 낙관속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타파하고 힘있게 전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민족민중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민중의 커다란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은 한반도문제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벌어진 사태에 근거해서 한국전역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또다시 남북대화를 비롯한 남북관계발전과 민족의 단합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4차 이산가족교환사업이 무산되고 여러 갈래의 남북** 안되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각계층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악랄하게 탄압하는 범죄행위가 계속자행되고 있어요.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민족의 자주통일을 주장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어 체포, 투옥되는 것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마치 북이 **을 위반한데 있는 것처럼 현실을 오도하면서 대화상대방인 북을 자극하게 하는 용납못할 험담을 마구 늘어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외부사태를 구실로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겨레의 통일열망과 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반통일행위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반민족반통일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로써 마땅히 그만 두어야 할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죠.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하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로 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기본은 온 민족이 진정한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온 민족의 단합된 역량으로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것입니다. 사실상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때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비할바 없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그런가하면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성실해야 합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세계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지지환영하고 그 활력이 현실로 확증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이고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입니다.

당국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일체행위를 그만두어야 하죠. 당면하게는 한국전역에 취한 비상경계조치를 철회하고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체포투옥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하는 것으로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편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극우보수세력과 반통일세력은 외세에 추종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역행하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죠.

각계층 민중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일체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제가 140여차의 공중정탐행위와 북침공중전쟁연습 감행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10월에 들어와 미제호전광들이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30일 ≪u-2≫고공전략정찰기가 덕적도, 포천, 속초일대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에 광분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과 22일에는 해외기지로부터 리륙한 ≪RC-135≫전략정찰기가 백아도, 양평, 양양 일대 상공을 반복 비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종심 지역에 대한 정찰행위에 열을 올렸다.

9일과 23일에는 ≪EP-3≫특수작전기가 조선서해 해상분계선 일대상공에서 해안과 바다밑에 대한 탐색에 날뛰였다.

10월에 들어 와 ≪U-2≫,≪RC-135≫전략정찰기에 의한 정탐회수는 30여차나 된다.

또한 8일과 15일에는 6대씩, 19일, 21일, 29일에는 4대의 ≪RC-12≫, ≪RC-7B≫ 전술정찰기들과 ≪EH-60≫ 전자전직승기들이 매일 동시에 출동하여 우리의 전연지대와 해안연선지대들에 대한 정찰행위에 열을 올렸다.

미제가 10월에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한 회수는 140여차에 달한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지역상공에서 북침을 노린 공중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백아도, 원주, 평창, 려주 일대 상공을 작전무대로 600여대의 전투폭격기, 습격기, 련습기, 무장직승기들을 집중 동원하여 공중전투, 지상대상물타격, 공중목표포착훈련을 련이어 벌려 놓았다.

일명 ≪전투준비평가≫훈련이라는 명목을 띠고 4일동안 벌어진 이 연습은 유사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이고도 ≪강력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소동이였다.

총포소동이 북남대화를 그르치고 있다

로동신문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지금 북남 사이에 제 6 차 상급회담이 일정에 올라 있는 때 남조선군부가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그 앞길에 더욱 복잡성을 조성하는 고의적인 반대화 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총포성이 울리고 화약내가 풍기는 속에서는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설사 북과 남이 마주 앉는다고 해도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우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남대화를 구원하고 협력과 교류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남측에 거듭 건설적인 제의를 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남조선군부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도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답해 나섰다. 이것은 남측에 북남대화를 열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로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군사당국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군사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아니라 외세와 작당하여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대화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

남조선군사당국은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흐려 놓고 그 앞길에 장애를 덧쌓는 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요반테로 협약들에 가입한다

외무성대변인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이 주요반테로협약들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은 잘 알려 져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로를 근절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으며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반테로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테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인질반대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주요 반테로협약들에 기본적으로 다 참가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테로를 반대하는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것이다.

9일부터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상급회담 개최를 통지

북측대표단 단장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이 3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은 전문다음과 같다.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일관된 제안을 귀측이 늦게나마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해 나온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립장에 기초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질것이라는것을 귀측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로골적인 해외침략책동

로동신문 ≪테로대책지원법≫안 일본국회통과를 론평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4일부는 최근 일본국회가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테로대책지원법≫안을 참의원본의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이 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앞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그 어떤 군사작전에도 뛰여들 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군국화를 다그쳐 온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을 위한 매우 위험한 걸음을 내디디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일본은 패망의 쓴맛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테로대책지원법≫채택과 때를 같이 하여 일본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의 기본활동에 참가할수 없게 규제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뜯어 고칠것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기본활동참가를 법제화하고 무기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해외파견≪자위대≫에 반땅크포 등 중무기를 장비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앞으로 ≪테로대책지원법≫을 휘둘러대며 얼마나 분별없이 날치겠는가 하는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과 1천여명 자위대 아프간 파병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일본 참의원은 10월 29일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의 발판인 자위대 전투병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과 일본내 미군시설등을 경비하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또한 일본은 이번에 통과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에 기초하여 미국의 아프간 전쟁의 후방을 지원하기 위한 1천여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자위대 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특급전범의 위패를 보관한 ≪야스구니신사≫ 참배와 핵무장화와 침략적 목적인 ≪에이취-2에이≫ 로켓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또다른 테러 아프간 보복전쟁을 이용하여 ≪자위대≫해외파병까지 합법화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해상보안청법 개정안을 가결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계획을 전면화한것이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의 실행기한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위대 파견은 파견명령이 이뤄진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투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공해 및 상공 이외에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외국 영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크게 넓혀놓았다.

또한 자위대 무기사용 범위를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 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목적으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난민과 미군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사용의 길을 열어놓았다.

한마디로 이번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은 일본 자위대가 전시에 해외 어디라도 출동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인 길을 합법화한 법이며 사실상 일본평화헌법 9조(전쟁포기와 군비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를 사문화시켜버린 엄중한 문제이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대아프간 보복전쟁에 1천여명 이상의 자위대를 합법적으로 파병함으로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이어 일본의 다른나라에 대한 군사행동과 간섭전쟁을 합법화한 법안이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이 법안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 문제는 곧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을 테러지원국가 운운하며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 그리고 아직도 과거 식민지 지배를 전적으로 청산할 의사가 없는 일본의 태도로 비추어볼 때 미국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순간 일본은 이 법안을 기초로 미국과의 군사협조라는 명목하에 이북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서슴없이 벌릴 수 있는 기초로 된다. 즉 일본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자신의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없이, 오히려 군사행동과 간섭전쟁을 합법화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참의원 가결통과를 통해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이에 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면모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과 해상보안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2. 일본은 미국의 또다른 테러 아프간 보복전쟁에 대한 1천여명의 자위대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전세계 민중과, 우리 민족앞에 겸허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군국주의부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쟁범죄의 참담한 패배에 이어 전세계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0월 31일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한국정부의 보복전쟁 지원및 파병반대 집회



반테러를 빌미로 하여 진행되는 미국의 대아프칸 공격이 명분이 없음으로 인해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민중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있는 가운데 10월 29일 한국정부의 보복전쟁 지원및 파병반대 집회가 국방부앞에서 열렸다.

미국의 아프칸 공격과 더불어 시작된 반전평화 시위는 정부의 전쟁지원 발언이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청년학생 반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열린 집회에서도 미국의 전쟁과 한국정부의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날 집회의 연사로 나온 홍근수 목사님은 미국이 벌인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수많은 월남사람들이 죽게하는데 일조를 한것이 우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는 미국의 패권전쟁에 지원을 약속하고 파병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아프칸에서 석유와 가스를 독점하기 위해서 반테러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치루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적인 전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서 청년학생 반전위원회의 강철구씨는 그간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반전운동을 확산시켜 반드시 전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군 사령부가 있는 미8군 기지까지 행진하여 정리집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참가자들이 집회신고가 된 미군기지앞 도로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고 집회를 방해하여 참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리집회연사로 나온 김성윤 목사는 국방부앞에서도 아무런 제지없이 집회를 마쳤는데 미군기지 앞에서는 허가된 집회마저 하지 못하는 것은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경찰들의 무리한 행동을 비난하였다.

신가혜 기자 2001-11-03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자위대관련 3법은 아시아침략 야욕≫

시민사회단체, 일본 군국주의화 강하게 비난



미국이 연일 아프가니스탄에 맹폭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응징을 돕고 향후 테러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 하는 ≪테러대책특별법≫과 ≪자위대법개정법≫, ≪해상보안청개정법≫ 등 자위대 관련 3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

이런 가운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총련 등은 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해외파병을 합법화 한 것은 세계평화보다는 자신들의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다≫며 ≪오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자위대의 해외침략 1차 대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9.11 테러사건을 빌미 삼아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동북아시아 재침략을 획책하는 교활함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자위대 관련 3법≫ 제정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묵인과 다름없으며,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반민족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쟁에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시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지 말라≫고 성토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완강한 저지로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자통협과 민주노동당 등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순택 기자 nohst@ohmynews.com
2001/11/02 © 2001 OhmyNews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논평

10월 31일

최근 미국 호전광들속에서 이북을 걸고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는 망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에 대고 ≪오산≫이니 ≪경고≫니 하는 망언을 한데 이어 얼마전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슈워츠는 그 무슨 초청강연이라는데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전력이 ≪테러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북의 위협에 대한 빈틈없는 ≪관찰≫이니 확고한 ≪대비책마련≫이니 하고 떠들다 못해 ≪몇갑절 보복≫하겠다고 도발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주한미대사 토마스 하바드도 있지도 않은 북의 **테러를 운운하면서 ≪충분한 대처≫요 뭐요하고 뇌깔렸다.

미호전광들속에서 연방 튀어나오는 이러한 분별없는 망언들은 이땅에서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여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해 보려는 저들의 범죄적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 부시정권은 대북강경노선을 정책화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고창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해왔다.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으로 하여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차단되고 한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어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보복전쟁과 때를 같이 하여 한반도에서의 그 무슨 ≪전력공백≫이란 구실밑에 주한미군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본토의 공군무력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한국에 끌어들였다.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력증강책동으로 인해 지금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이땅에서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북침전쟁준비를 완료하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저들의 불순한 무력증강책동과 반북대결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이같은 처사에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며 평화와 대결의 악인 미국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늘 이땅에서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속에서 미국의 ≪한반도무력증강반대≫, ≪북침전쟁도발책동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연일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드높은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시대와 민의에 역행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전 국민의 드센 항전에 부딪혀 비참한 파멸적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에 추동하여 반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가담하는 친미세력도 우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은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동족과 공조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한반도에 **해 이땅에서 무모한 북침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족적인 반전반미항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미침략군을 반드시 몰아내고야 말것이다.

통일뉴스 창간 1주년

≪통일시대엔 통일언론 필요≫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tongilnews.com) 창간 1주년 기념식이 지난 3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기념사에서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가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그리고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면서 ≪통일시대에는 통일시대에 걸맞는 통일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환 대표는 ≪통일시대의 통일언론은 6.15정신인 민족화해의 소식을 알리는 언론이어야≫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작더라도 서로 같은 점에 기초하는 것이 민족화해의 길이자 통일시대 언론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정현(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종수(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상임본부장), 김원웅(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손장래(현대모비스 고문)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었다.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기념 강연을 통해 분단상황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가깝게는 근현대사의 연속≫이라며 ≪근현대사라면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30~140년의 역사를 말하는데 미.일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침략과 그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김남식 상임고문은 ≪우리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민족의 자주권확보와 근대민족국가 건설≫이라며 이를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중선 통일뉴스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뉴스가 1년만에 이렇게 잘 자리잡게 된데 신기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잘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일뉴스가 1년간 걸어온 길을 비디오로 제작한 ≪1주년 돌아보기≫와 가수 이정렬씨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고, 통일뉴스 창간 1주년 기념 ≪보도사진전≫도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전시된 사진들은 당사자들에게 증정되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근처 식당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도 대부분 참여해 축하의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통일뉴스는 작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리영희(전 한양대 명예교수)씨와 창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인터넷에 공개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2

남측 진보적 학술진영과 북측 학자간의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제안한다



오랜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지 이미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물론 남과 북이 대치해왔던 그 동안에 상호 대화와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그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촉진을 위해 더 한층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탈냉전이래 남과 북은 상호 대화와 접촉을 상당정도 증진시켜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 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6 · 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인 해결 원칙과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 교류 협력의 강화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선언은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다져 나갈 것도 다짐했다.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남과 북이 이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남과 북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남한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식인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우리 진보적 학술진영은 이 새로운 사태를 맞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반시대적 행태와 장애가 여전히 엄존하는 국내외적 현실에서 그것은 더더욱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그 동안 남한사회에서 진보적 학술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북측의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민교협과 학단협을 주축으로 하는 남측의 진보 학술진영과 사회과학원 등 북측의 학자간에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문제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의 학자들이 중심이 된 학술교류는 학문의 장에서 남과 북의 간격을 좁히는 일일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고 그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남북 학자들의 만남은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 등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긴급히 대처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 남북 학자들의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교협과 학단협은 남측의 진보적 학술진영을 중심으로 ≪남북학술교류연합≪을 구성, 그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측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북한의 관련당국에게 이 같은 남북간 학술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은 그 험난한 고통 속에서도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또한 남북의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양측의 상호 대립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선대의 노력에 뒤이어 우리 역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의 제안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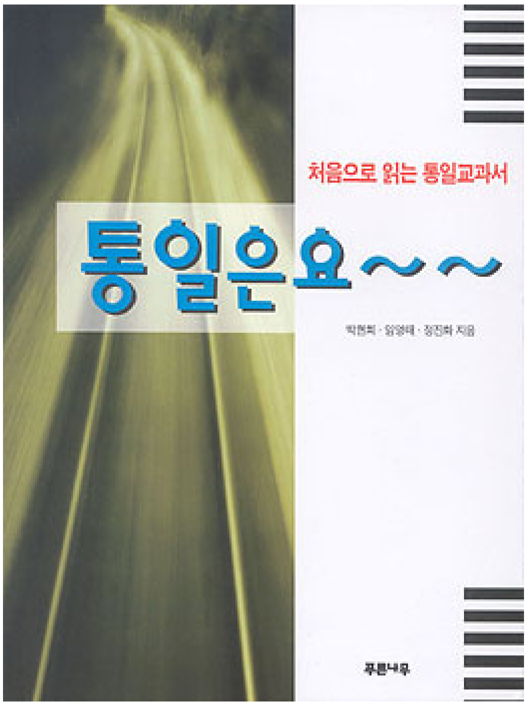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 문학예술연구소 · 민족문학사연구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월혁명연구소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 시민환경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학연구소 · 제주 4.3 연구소 · 한국공간환경학회 · 한국교육연구소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국산업노동학회 · 한국산업사회학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정치연구쇠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상 학술단체협의회 소속단체)

≪화제의 책≫ 처음으로 읽는 통일교과서 ≪통일은요~~≫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흐름에 들어섰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대화는 물론 금강산과 평양에서 민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통일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통일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특히 통일시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의 경우에, 북한과 통일은 ≪너무나 먼 존재≫이거나 ≪통일은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다.

푸른나무에서 출판한 ≪처음으로 읽는 통일교과서≫라는 부제를 단 ≪통일은요~~≫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교과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책이다.

1부 ≪통일문답 :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는 ≪통일은 꼭 해야 하나?≫, ≪통일이 되면 군대에 안 가도 될까?≫, ≪통일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등 제목만 보아도 금새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 ≪북한 사람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와 3부 ≪북한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는 북한의 사회와 정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4부 ≪이산가족은 왜 생겼을까?≫는 ≪휴전선은 언제 생겼을까?≫,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통일의 역사를 최근의 논점까지 담아서 풀어내고 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쓴 이 책은 표와 그림, 사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단편집 하나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신문, 자료, 책 등의 자료를 풍부히 인용, 제시함으로써 책의 객관성을 높이고 꼼꼼한 용어설명은 읽는 이의 불편함과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 책의 필자들인 박현희(전국사회교사모임 교사), 임영태(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정진화(전교조 교사)씨 등이 평소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오랫동안 통일에 관심을 가져왔던 교사이고 연구자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되게 ≪통일시대≫에 맞는 민족화합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도덕 교과서나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통일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냉전적 시각을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은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역사의식에 근거해 북쪽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데 충실하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북한 사회나 통일 문제를 표피적으로 있는 사실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보다 더 깊은 역사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는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이야기 식으로 쉽게 풀어쓴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수치와 도표, 익숙치 않은 단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저학년보다는 중학생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이 주 독자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업교재로 더욱 많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주제를 제한된 지면에 모두 다루려는 시도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방안이나 민족자주의 문제 등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는 불량 청소년이 없나≫처럼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춘 듯한 대목도 눈에 뜨인다.

이런 몇 가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통일교과서를 갈망해온 많은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읽는 통일교과서≫ ≪통일은요~~≫는 분명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의식으로 씌어진 ≪통일교과서≫ ≪통일은요~~≫가 일선 교육의 현장과 서점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6

미국은 주한미군전력증강책동을 즉각 중지하라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1월 1일



요즘 미국이 아프간전쟁을 구실로 이북을 걸고 이 땅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면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어 각계 애국민중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토마스 슈위츠는 지난 10월23일 재향군인회 초청강연이라는 데서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전력은 테러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이북의 위험에 대해 빈틈없이 관찰하고 북의 오판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언동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북은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곡절을 겪고 있는 장관급회담을 하루속히 열자고 남측에 제의해 오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북을 걸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오던 남북이산가족들의 교환방문이 연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북을 걸고 주한미군전력 등을 증강하면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아프간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무슨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공군 한개 대대병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등 은밀히 주한미군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의 구실밑에 ≪비상경계령≫까지 하달하게 함으로써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북미관계개선이니, 대화재개니 하는 것도 사실상 세계여론을 오도해 보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지난 6월에 내놓은 북미대화 ≪재개제안≫이라는 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이북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이 수만명의 미군과 막대한 살인무기, 수많은 핵무기까지 이 땅에 가져다 놓고도 계속 무력을 증강하면서 이북에 대고 상용무기를 축감해서 평화의지를 보이라는 것은 강도적 요구이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뿌리깊은 대북적대시정책과 전력증강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아프간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전력을 증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전력증강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민중은 강력한 반미항전을 벌여 이 땅에 들어온 살인무기와 양키침략군을 철거시키고야 말 것이다.

MD 첫 단계, PAC-3 배치 임박

해외 배치 첫 지역, 한국 될 듯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PAC-3의 개발 및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미국의 군비통제전문잡지인 ≪Arms Control Today≫ 11월호가 보도했다. PAC-3는 걸프전을 통해 잘 알려진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최신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과 마찬가지로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전의 요격 미사일이 폭발물을 내장해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 ≪hit-to-kill≫ 방식은 초고속으로 날라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PAC-3의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자체적으로 고성능 레이더 시설과 목표물의 확인 · 식별 장치, 원거리 발사 · 통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다른 MD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MD 체계에서 저층방어를 담당하는 PAC-3는 이보다 높은 고도와 넓은 지역에서 요격이 가능한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및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해상방어체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설계된 것이다.

미 육군은 지난 9월 26일 PAC-3의 실험 평가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록히드 마틴이 생산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외국 정보기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PAC-3의 생산량, 배치 시기, 배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다.

걸프전 당시에 10%에도 못 미치는 요격률로 웃음거리가 된 바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후 꾸준히 성능이 개량돼, 이 시스템의 최신형인 PAC-3는 사거리 1500km 안팎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10차례에 걸친 ≪개발 단계 요격 실험(developmental testing)≫ 가운데 9번을 성공하기도 했다. 개발 단계 실험이 완료됨에 따라 PAC-3는 우선 소량이 생산된 후 ≪실전 실험 및 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지는 2002년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PAC-3와 한국

미국이 사실상 PAC-3의 실험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 무기체계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구입하려는 한국의 국방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은 ≪실존≫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지난 9월 11일 만난 미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관료로 구성된 ≪MD 설명단≫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에 설명단 대표들은 ≪미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은 한국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PAC-3를 비롯한 MD 무기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약 4천만 평에 달하는 ≪헌 땅≫을 한국 측에 반환하고,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평택 등에 추가적인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PAC-2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PAC-3로 대체될 예정이다.

PAC-3는 또한 국방부가 차기방공망 사업(SAM-X)으로 2조 4천억 원을 들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다. 그 동안 국방부는 이 사업이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나, PAC-3가 MD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만난 공군 고위 관료들은 PAC-3 도입과 MD 참여간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현재 국방부의 MD에 대한 입장은 ≪다른 나라의 입장과 국제 사회의 합의 수준, 그리고 MD의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D 참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클린턴 행정부 때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불참 입장을 고수해온 것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미러간에 MD 배치에 필요한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의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PAC-3의 개발 및 실험 완료에서 알 수 있듯이 MD 무기체계의 일부 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살 만하다.

내년 하반기경나 2003년 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PAC-3의 한국 내 배치 및 이 무기의 도입은 한국이 MD에 참여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PAC-3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주임무로 삼는 MD체계에서 핵심적인 무기체계라고 볼 수는 없으나, MD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2001/11/05 ⓒ 2001 OhmyNews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

≪민간인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및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 열려





한국전쟁을 전후로 국군,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회)≫와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5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합동위령제에서 강조됐다.

이날 합동위령제에서 채의진 유족회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이승만 정권 시절 숨죽여 살다 4.19 이후 거창사건의 유족자를 필두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와 유족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용공, 좌경으로 몰려 옥고를 치루는 등 유족회는 해체되고 진실규명은 산산조작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의진 상임공동대표는 ≪오랜 노력으로 인해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됐으나 전국에서 벌어진 민간인학살에 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번 회기안에 통합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라≫고 절규했다.

특별통합법의 발의에 앞장선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가 살인자와 범죄자를 비호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부끄럽다≫를 연발했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국회에는 수구세력이 아직도 많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장개혁파 세력이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해 희망은 있다≫며 ≪아주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합동위령제에는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와 오종렬 민중연대 상임대표가 추도사를 통해 ≪유족회가 바로 서서 미군의 범죄를 밝혀내야 한다≫며 ≪그 작업에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청년학생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식과 학살에 대한 일련의 모습을 형상화한 진혼굿이 선보여 유족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2부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에서 김상태 유족회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반세기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상처로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다≫며 ≪오늘의 자리는 죽은 영령앞에 하나로 뭉쳐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고하는 자리로서 학살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유족회를 강화하여 통합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태 상임공동대표는 ≪유족회는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겠지만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외세를 몰아내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합동위령제와 유족회 재창립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특별 통합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 앞에서 통합법 제정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열고 해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9월 6일 47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22일 정식으로 발족하여 최우선의 사업으로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5

전국유족회 농성 첫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유족 400여명과 20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민간인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및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를 힘차게 치러냈습니다. 대회를 치러낸 유족분들은 지난 9월 6일 국회에 발의된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기국회가 계속되는 동안 농성을 결의하셨습니다. 이번주는 대구, 경북의 유족분들이 농성을 하시는데, 먼저 코발트 폐광 유족분들이 월,화,수 농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려고하자 무장한 경찰이 무자비로 달려들며 3개의 텐트를 막살내 버렸고, 그 와중에서 연세 높으신 유족분들이 부상을 당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족분들이 차가운 비와 바람속에서 떨고 있을때, 도대체 왜 천막을 부셨냐고 따지는 유족분들을 경찰들의 방패와 몽둥이로 막으며 도망치듯 피했던 경찰간부들은 어느새 15인승의 따뜻한 차안에서 여유있게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으로 그대로 보였습니다.

경찰의 폭격적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유족분들과 실무자들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비와 바람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판자로 잇고, 스티로폴을 대고 해서 겨우 운신처를 마련했으나 이것마저 경찰은 가만 놔누지 않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현재 경산 유족분들은 영등포산업선교원에서 지칠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투쟁은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 현대사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유족 한 분 한 분의 삶의 고통은 바로 굴종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이후 세워졌던 전국유족회에서 활동하시다 5.16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5년의 감옥살이를 하신 송철순(부경유족회 회장,전국유족회공동대표) 선생님의 죄목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부상을 당하신 송철순 선생님은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40년전에 옥살이, 이제는 경찰의 폭격까지 행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으로 살아가겠냐며 한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서 유족들의 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100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떠돌고 있는 원혼들이 고이 잠드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지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단체의 지지 방문 및 지지 농성을 요청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아치는 바람과 낮은 기온에도 유족분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찰의 폭력으로 천막은 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투쟁과 50년전 학살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들과의 만남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농성을 하고 계시는 경산 코발트 폐광 유족들은 먼저 오늘 오전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권욱 수석전문위원과 만나 어제 경찰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이번 회기에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도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특별법안을 심의하게 될 행정자치부 소속의 한나라당 간사인 민봉기 의원(인천 남구갑)을 만나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했고, 이어 박재욱 의원(경산,청도), 윤영탁 (대구 수성을)의원을 면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5시부터는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한시간동안 국민들을 만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투쟁≫에 함께 해 줄것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나눠주는 선전전을 펼치셨습니다.

전국유족회 농성 둘째날

어제 ≪전국합동위령제와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를 위해 대구에서 5시간을 올라와 추운 날씨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던 유족분들, 그리고 음식도 잠자리도 편하지 않은 속에서도 유족들이 단결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의를 끊임없이 다지시며 앞으로 유족들이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시는 모습은 투쟁속에서 단련된다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고 계셨습니다.

경북 경산 유족분들의 농성은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며 경북 청도 유족회와 교대를 하실 예정입니다. 당분간 농성은 영등포구산업선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민특위 남측본부



이회창 죄록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일～4일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은 민족의 역적인 이회창의 죄상을 만천하게 폭로하는 고발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엔 고발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지금 각계에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대학가와 공단은 물론 언론계와 종교계, 정계에서까지 반이회창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집권욕에 환장해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은 이회창의 만고죄악을 결산하려는 민심을 반영해 이글을 낸다.

일등 친미사대매국노

독초뿌리에서 독초가 나오듯 역적의 가문에서 역적이 나오는 법이다. 희대의 역적인 이회창 역시 역적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이후 일본 검찰청에 들어가 일제에 충실한 주구로 악명을 떨쳤다. 친일주구인 이홍규는 일제의 손발이 돼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민중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는데 특출한 공로를 세워 검찰기관의 판관 견습생으로부터 검사로 고속승진을 했다.

당시 검사자리에 이홍규가 발탁됐다는 것은 그의 역적질이 어느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죽했으면 이홍규가 자기의 이름을 ≪마루야마≫로 고치고 집안에서 일상대화를 일본말로 했으며 이회창과 함께 기모노를 입고 일본천황만세를 열창하며 사진까지 찍었겠는가.

사대매국역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홍규는 8.15광복후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재빨리 변신했다. 미군정청의 거두였던 아놀드미육군소장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된 이홍규는 그후 대검찰청 검사로까지 올라가면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나선 애국인사들을 파쇼악법에 걸어 중형과 극형에 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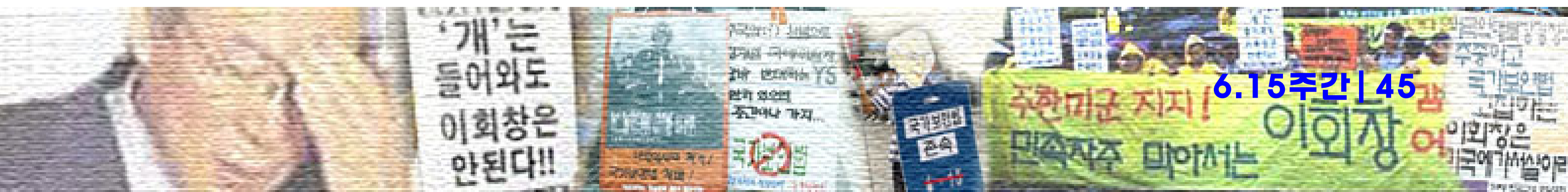
상전을 바꾸어 가며 우리 민중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덮씌운 이홍규는 극악한 친일친미사대매국역적이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이회창은 애비의 역적체질을 그대로 승계해 친미사대매국역적질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며 민족민중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쳐왔다. 코흘리개 시절에 벌써 기모노를 입고 애비로부터 사대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회창은 미국유학을 하면서 숭미공미사상이 골수에 찬 친미분자로 전락했다. 그때 이회창은 미국 CIA의 첩자로 흡수되어 진보성향의 유학생들을 감시, 밀고했고 귀국해와서도 법관의 감투를 쓰고 미국대사관과의 연계밑에 첩자로써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그가 하루아침에 집권여당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은 미국이 자기의 손때묻은 주구를 더 크게 써먹기 위한데 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더욱 노골화됐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는 내외가 격찬하는 6.15공동선언에 대해 입을 거품을 물고 험담, 한미관계손상운운하며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외쳐댔다. 걸핏하면 주한미군철수 불가론을 떠들었기에 그는 한러정상회담에도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 찬성했다고 해서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외교적 실책을 범했다는 등의 괴뢰주의찬양론을 거리낌없이 역설했다.

외세의존과 친미사대매국에 명줄을 걸고 있는 이회창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저들 패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쾌재를 올렸는가하면 미국이 떠드는 북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을 앵무생처럼 외웠으며 세계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도 적극 지지해나서고 있다. 심지어 북러모스크바선언에 대해서까지 악랄하게 걸고들며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험담을 했으니 세상에 이처럼 비열하고 악질적인 매국노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민족사에는 사대매국행위로 치욕스러운 행적을 남긴 민족반역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회창처럼 대를 이어가며 친일친미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해 민족앞에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매국역적은 드물다.





극악한 반통일미치광이

조국통일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다. 그러나 이회창은 통일하고 함께 살아야 할 이북의 형제들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개정은 무장해제되는 것이고 남한사회를 통째로 북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철폐는 고사하고 글자 하나 고칠수 없다고 뻗치고 있다.

이회창은 바로 이런 자이기에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북의 적화통일의도라느니 수용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떠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이전의 군사독재정권시기에 들고나왔던 반민족, 반통일승공통일구호, 동족대결구호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낡은 대결보따리를 또다시 펼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추악한 반통일적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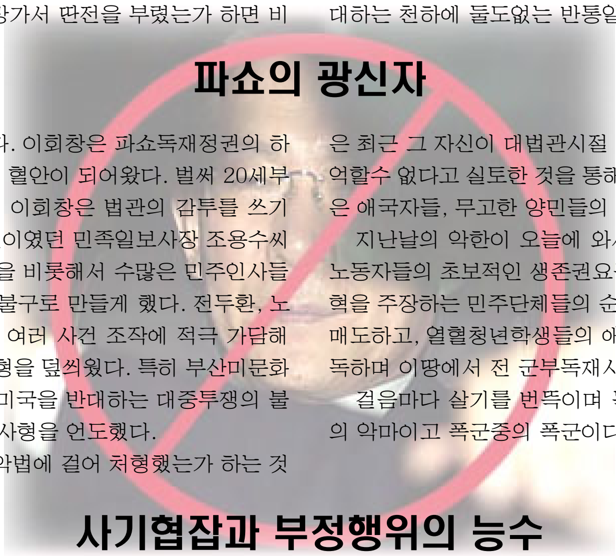
그가 얼마나 남북대결에 환장했으면 대학생들에게서 썩은 계란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반통일선전에 광기를 부렸겠는가. 이회창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무슨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퍼주기식이라고 반대했고 경의선복원공사에 대해서는 남침통로가 열린다고 불에 덴 소처럼 야단했다. 이산가족교환방문때에는 혈육들의 감격적인 상봉을 외면하고 지방으로 도망가서 딴전을 부렸는가 하면 비전향장기수들의 북행길을 차단하기 위해 깡패들을 내몰아 도로를 가로막아 나서는 망동까지 부렸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소식에 한반도는 물론 온 지구촌이 감격과 기쁨에 설레이며 TV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때 유독 이회창은 TV를 끄고 돌아앉아 손자와 화투놀이를 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회창의 남북대결책동은 올해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극도에 달했다. 통일축전자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이회창은 축전이 성과리에 진행되자 축전장소 등을 걸고들면서 무슨 돌출사건을 만들어 남북대결을 고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열기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이회창은 한국판 매카시즘소동을 벌이며 사회를 중세기적인 암흑사회로 되돌려 세우려하고 있고 국회마당까지 남북대결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할데 관한 북의 제의에 대해서까지 누구에 대한 구출작전이라며 상식이하의 넋두리를 했으니 그것은 정치인은 고사하고 일반인의 사고능력마저 상실한 저능아의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

확실히 이회창은 통일이라면 히스테리적 발작증을 일으키며 반대하는 천하에 둘도없는 반통일미치광이이다.



파쇼의 광신자

민주와 독재는 공생공존할수 없다. 이회창은 파쇼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민주민권을 교살하는데 혈안이 되어왔다. 벌써 20세부터 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 기생했던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쓰기 바쁘게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언론인이였던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씨를 파쇼악법에 걸어 사형에 처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게 했다. 전두환, 노태우군부독재시기에도 **회사건 등 여러 사건 조작에 적극 가담해 양심언론인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중형을 덮씌웠다. 특히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질러 광주학살의 주범인 미국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불씨를 심어준 김현장, 문부식씨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쇼악법에 걸어 처형했는가 하는 것은 최근 그 자신이 대법관시절 그런 판결이 무수히 많아 미처 다 기억할수 없다고 실토한 것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애국자들, 무고한 양민들의 피가 묻어 있다.

지난날의 악한이 오늘에 와서 선인이 될수 없다. 이회창은 지금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진정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단체들의 순수한 시민운동을 누구의 홍위병으로 매도하고, 열혈청년학생들의 애국민주운동을 친북이적활동으로 모독하며 이땅에서 전 군부독재시절을 재현해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걸음마다 살기를 번뜩이며 독기를 뿜는 이회창이야말로 악마중의 악마이고 폭군중의 폭군이다.

사기협잡과 부정행위의 능수

사기협잡과 부정행위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기 돈암동 동보극장과 다방을 드나들며 간상배의 기질을 터득한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쓴 이후 부정축재에 깊숙이 몸을 잠궜다.

살인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잡범들의 변호를 맡아서는 그것을 성사시켜주는 댓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챙겼다. 그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라는 말을 아는가고 하면서 교활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냈다. 그가 마약사범으로 기소됐던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신모씨에게 엄청난 사례금을 요구, 부정착복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율곡비리와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를 주관해온 이회창은 사건관련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감사를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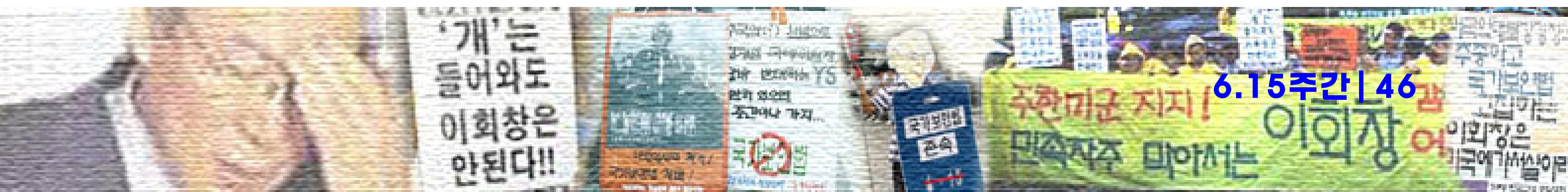
이회창의 부정자금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안기부자금 부정대출사건도 그것이다. 96년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하던 이회창이 안기부자금을 부정대출해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큰 몫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회창이 지금 야당총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벌들을 비밀리에 만나 차기대권을 잡으면 구조조정된 업종을 원상복귀시켜 주고 금융특혜를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며 비열한 사기, 협잡, 공갈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 지난 97년 재산공개때 이회창의 집재산을 15억원으로 등록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깔고 있는 갑부로 된 것은 이런 추악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았기 때문이다.

음모와 모략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이회창은 충복들로 국가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돈줄로 이용하고 있다. 또 자기 자식들을 군부, 병무당국에 막대한 뇌물을 주고 허약자로 만들어 징집에 불법면제시켰을뿐 아니라 그들을 미국으로 빼돌려 부정축재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대쪽이 아니라 뿌리까지 썩어 구린내나는 개쪽이다.

이회창의 행적은 반역으로 일관된 죄악의 행적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한반도정세는 더욱 긴장해져 우리 민족이 무서운 핵참화까지 입게 된다.

각계 국민은 만고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이다.





이회창의 ≪바른 통일≫론 그 저의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1월 1일



이회창이 얼마전에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국제회의리셉션축사에서 한반도에는 빠른 통일이 아니라 ≪바른 통일≫이 중요하다며 상이한 체제와 제도를 연방이나 연합이란 이름으로 짜깁기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러면 이회창이 말하는 ≪바른 통일≫이란 어떤 것이며 그 저의는 무엇인가.

이회창의 ≪바른 통일≫이란 한마디로 말해 제도통일이다. 즉 현존하는 상이한 두 제도, 두 체제를 하나의 제도,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통일, 다시 말해 자본주의제도에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황한 논리라는 것은 이미 확증된 것이다.

현재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느 쪽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와 체제의 일체화를 전제로 하는 제도통일은 현실성이 없으며 또 남북간에 대결과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제도통일을 ≪바른 통일≫이라고 역설하는 바탕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대권꿈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쪽≫이요, ≪정의≫요 하며 법관행세를 하던 이회창이 한나라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대권실현을 위한 행보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이회창이기에 통일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있어 본적이 없었다.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들의 기득권유지는 오직 분단의 지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총재가 된후 그가 직접 혹은 측근들을 내세워 한 말들을 보면 모두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적 망언들 뿐이였다.

이런 추악한 망발들은 이회창에 대한 민중의 응당한 지탄과 배격을 자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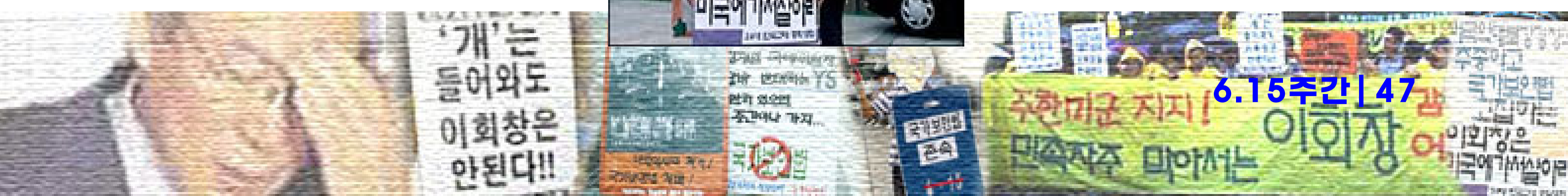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른바 ≪바른 통일≫이란 말로 마치 통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여 대선을 위한 민심획득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의 말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이회창의 ≪바른 통일≫론제창은 6.15공동선언으로 높아가고 있는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기만우롱이고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인 범죄적 행위이다.

이회창은 이제 그 어떤 말로도 자기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체를 가리울 수 없으며 오직 민족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보법 언제까지 유지하려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31일~11월 2일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지금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해 *과 **을 다하고 있는 *** 주민들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오가고 있는거죠. 그러므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국보법은 6.15공동선언발표와 함께 철폐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통일애국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어 민중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국보법 언제까지 유지하려나≫ 임기수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온 겨레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악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땅에서는 민족의 이러한 한결같은 요구와 지향에 역행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사면위원회가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오히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당국은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를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계속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법을 코에 걸고 감행되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날을 따라 그 도수가 더욱 우심해 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한총련대의원들에게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개수사령을 내리겠다는 위협통지를 보내는 한편 조직에서의 탈퇴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한 대의원 전원을 체포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9기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소동이 벌어지는 속에 지난 6월 한양대학교에서 있은 9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는 등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탈퇴를 거부했다해서 안모군을 비롯한 서울지역 대의원 10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지금 한총련 대의원들과 핵심성원 600여명이 구속되거나 수배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건 한총련뿐 아니라 노동운동가들, 각계 애국민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이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 민주노동자회의를 결성하고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각종 문서를 탐독했다해서 관계당국이 그들을 구속한 사실, 민족민주혁명당 영남지역위원장 최진수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많은 애국적 사람들이 희세의 파쇼악법에 얽매어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국보법유지를 고집하는 보수우익세력들과 공안당국은 이북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이 악법에 걸어 탄압하는 낡고 구태의연한 수법에 계속 매달리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있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남측본부 성원들과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에 대한 탄압이 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당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출판물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엄혹한 현실을 두고 이땅에서는 국보법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분명히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민중은 국보법의 희생물로 될 것이 아니라 이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걸맞게 국보법을 즉시 철폐해야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들은 국보법철폐를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걸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보법을 그냥 두고선 자주, 민주, 통일 어느 하나 이룩될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국보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미국신문이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0월 28일 미국의 서부 유력지 ≪로스엔젤리스 타임스≫가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글을 냈습니다.

신문은 지난 8.15평양축전 방북단 가운데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7명이 국보법위반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 법의 문제점과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한 국보법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인권단체들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아온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미국신문이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한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대결시대의 유물입니다. 국보법의 50여년사는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도 결코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북을 통일대화의 일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의 동족을 반국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악법입니다. 국보법은 남쪽의 사람들이 북의 동족과 만나는 것도 범죄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선의의 동반자가 되어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이로운 것은 이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결의 낡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그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 와서도 희세의 파쇼악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처형당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보법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해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일념을 안고 평양에서 있었던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했던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을 죄인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이 악법의 반민족, 반통일적 성격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국보법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파쇼악법이기 때문에 공표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일본 가고시마대학 로버트 프소브교수는 국보법은 초보적으로 법의 틀도 갖추지 못한 악법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미 폐지했어야 할 파쇼악법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까지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당국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국보법은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국보법철폐에 대한 태도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사대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부르짖고 돌아앉아서는 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보며 통일애국세력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대화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고 있는 국보법을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내외의 정당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보법 철폐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속학생 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31일~11월 2일



가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추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 철창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구속학우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못 이룹니다. 그럼 이번엔 ≪구속학생 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 드리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조국통일운동은 전환적 국면을 맞이했으며 남과 북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의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중의 하나가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입니다. 공안당국은 국보법이라는 악명의 도구를 휘둘러대면서 많은 애국학우들을 구속수배하고 있습니다. 9월 한달만해도 서원대 총학생회장 김모학우와 전 경인총련 의장 김건수씨 그리고 창원대 총학생회장 송모학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우들이 계속 체포연행되었습니다. 이건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위라 아닐수 없는 겁니다.

구속학우들로 말하면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자기들이 지닌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젊음을 깡그리 불태워온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입니다. 그러니 공안당국의 눈에는 그들의 의로운 행동이 눈에 든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지도 1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국보법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땅에서의 조국통일운동과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 그것은 곧 우리 민중의 통일애국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되는 겁니다. 공안당국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미 건국대총학생회장 배민균학우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황선씨, 그리고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김영배학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우들이 구속되어 철창에서 옥고를 치루거나 추위가 닥쳐오는 지금까지도 경찰의 수배를 피해 숨어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투쟁해온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보고만 볼수 없습니다. 이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키고 수배를 해제하도록 하는 건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무이고 도리로 됩니다. 또 그것은 공안당국의 탄압을 저지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청년학생들은 구속학우석방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바로 알고 이 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건 우선 청년학생들이 구속학우석방과 수배해제의 구호를 들고 대학가마다에서 이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학생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문제를 여론화시키는 한편 이를 공안당국에 강력히 요구해 나서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이 운동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민중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땅에는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국보법의 희생양으로 된 수많은 학우들의 부모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투쟁에 적극 분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속자석방문제는 청년운동단체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운동단체들앞에 나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각계 재야단체들과 단합해서 구속자석방을 요구해 나서야 할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구속학우석방운동을 국보법철폐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구속학우석방투쟁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또 구속자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지금까지 해온 국보법철폐투쟁의 도수를 한층 더 높여 이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이 구속학생석방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싸워 나갈때 구속학우들은 사랑하는 학우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될때 자주, 민주, 통일도 앞당겨 질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옷,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눈물로 진행된 400회 민가협 목요집회





≪제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됐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목요집회가 400회를 맞았으나 가족들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가진 목요집회는 주인을 기다리는 양심수의 옷이 전시되었고, 자식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며 어머니들이 수의를 입고 참여했다.

민가협의 임기란 상임의장은 여는말을 통해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철을 외치며 탑골앞에서 진행해온 목요집회가 9년째 되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31일) 집계된 통계를 보면 123명의 양심수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들었다며 ≪이들이 다 석방되는 날까지 목요집회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요집회에서 수의 입은 어머니들의 뒷편에 전시되어 눈길을 끌던 주인을 기다리는 양심수들의 옷에 대한 사연이 몇 개 소개됐다.

먼저 민혁당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은 하영옥씨의 어머니 권성희(69세) 씨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낭독을 통해 하영옥씨가 매일 아침 입고 달리던 운동복을 며느리가 석방을 기다리며 빨고 또 빨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전하며 ≪제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혼 2개월만에 구속된 남편(심재춘씨)에게 빛깔좋은 스웨터를 입혀주고 싶어 옥중에서는 입을 수 없는 스웨터를 눈물로 보낸 이문희, 심재춘 부부의 편지가 소개됐다. 편지를 낭독하던 이문희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얼마전 구속된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의 아내 김일심씨도 독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자주민보가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냐며 남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98년 8.15축전에 남측대표로 참여해 4년형을 선고받은 김대원의 여동생 김미영씨는 김대원씨가 ≪지난 6월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사람을 만나려하지 않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석방되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목요집회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나 하나 소개될 때마다 이를 지켜보던 참가자들과 시민들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같이 울었다. 복받치는 설움을 억누르려는 양심수 가족들의 모습은 집회 분위기를 내내 숙연하게 했다.

또한 비전향장기수들이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꽃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서경순(민가협 전 상임의장)씨가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란 인권개혁 촉구문을 낭독한 뒤 참가자 전원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 길을≫ 노래를 부르며 400번째의 집회를 마무리됐다.

한편 목요집회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민가협의 채은아 간사는 민가협의 목요집회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석방을 가져올 수 있었고 또한 석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빨갱이 간첩이라고 생각됐던 이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400회를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채은아 간사는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사람들의 기억속에 양심수라는 세글자가 사라졌을 때도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지는 이 주장을 계속해야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심수 가족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했던 ≪주인을 기다리는 옷≫ 퍼포먼스는 양심수들이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로 열흘동안이나 준비해서 전시된 것이라고 한다. 언제쯤 이땅의 양심수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옷과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1

10기 남총련 의장 최종은동지에 대한 폭력 불법 연행을 규탄한다.



이 땅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는가?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최근 한 달사이 학생들을 무려 5명이나 연행 구속하고 8년째 수배생활을 하던 젊은이를 잡아가두어 시민들과 학생들의 가슴을 놀래키더니 이제 10기 남총련 의장이자 2001년 조선대 총학생회장인 최종은 학생을 영장제시도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아무 죄 없는 최종은 남총련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학생들에 의해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회 활동을 한 게 무슨 죄가 되는가? 이 지역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남총련≫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학생운동을 책임지고 활동해 나간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것이 무슨죄가 되는가? 공안당국이 그토록 시비질하는 폭력시위조차 벌이지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은 게 죄가 되는가?

10기 남총련 최종은 의장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아 볼 수 없으니 당장 그를 석방해야 한다.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을 잡아가두는 보안수사대는 즉각 해체하라!

조국농업인 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의 한국인 사형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정부가 무슨 낯짝으로 애국 청년학생들을 잡아 가둔단 말인가? 이는 분명 독재의 하수인이였던 자들이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자 발버둥치는게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시대의 잔재를 들이밀며 애국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독재의 하수인들이 다시 활개치는 것은 참고 볼 수가 없다. 독재의 망령아래 수족처럼 활개쳤던 안기부(現 국정원), 보안수사대, 공안검찰은 역사와 민족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 그 기구들을 즉각 해체하라.

독재의 썩은 잔재,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의 모순과 잘못된 적용사례를 구구절절 말한 들 무엇하겠는가? 이미 국가보안법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악법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며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임을 만천하가 아는 것을... 그러나, 썩을 데로 썩은 국회가 과연 이 법에 대한 폐지의 의지가 있을리 만무하다. 이른바 일개 정당의 대표라는 자가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까지 작금의 정치권이 역사적 안목과 용기가 있겠느냐 말이다. 국민들이 무섭거든 국회는 정쟁일랑 그만두고 법률적 처지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청년학생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지켜진 조직이다. 최종은 남총련 의장이 연행되었다한들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운동을 포기하겠는가? 범민련 광주전남연합은 범민련의 선봉대오 남총련의 의연한 기세를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남총련이여! 드팀없는 승리자의 기세로 ≪새조국 건설의 선봉, 자주의 횃불≫로 우뚝 서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1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8 · 15 방북단 파문의 처리과정을 기켜보면서 반세기를 지나 겨우 성사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과정에서 생긴 고양된 감정들이 빚어낸 작은 일임에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반통일세력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 공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아울러 여러 차례 엄중한 경고를 보낸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방북단 7명에 대한 완전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란 구성원 개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권력도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하 수 없으며, 그 제한은 곧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사법부가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정구교수의 학자적 소신과 양심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선진 여러 나라가 판례를 통해 비슷한 사안의 판단을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맡겼던 것은 바로 양심과 사상과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야 말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사법부가 ≪만경대 방명록 파문≫ 이후 강정구교수의 연구성과와 강연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문적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정 공방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한다. 일부 집단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권력을 빌어 양심의 자유, 사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압살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상을 용인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파쇼 독재 사회와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정구교수를 비롯한 8 · 15방북단 사건을 문제 삼는 사법적 준거는 냉전시대의 퇴영적 잔재로서 군부파쇼 독재를 지켜주었던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내 뿐 아니라 미국 국무성을 비롯하여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그 폐지를 요청한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2000년 5월에 있었던 문규현 신부의 방명록 무죄판결, 같은 해 7월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 정진상 교수 무죄판결, 올해 2월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 무죄판결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거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제한적 적용을 판시한 사법부의 양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이 이번 방북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서 재판부가 ≪학문은 학문 내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더 큰 발전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판시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문,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마찬가지로 오랜 이류의 역사속에서 무수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나 우리 헌법에서 무엇에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 누구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세월을 넘어서기 위한 강정구 교수와 8 · 15방북단의 노력이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으며 이제까지 강정구교수가 해 온 연구 또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학자적 양심의 소산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울러 이러한노력이 다시는 역사를 거스르고 통일을 훼방하는 수구 바통일 세력의 정략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관련자 모두의 조속한 석방과 더불어 이어 진행될 재판에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1년 11월 3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상지대 · 성공회대 · 한신대 공동부설)

학술단체협의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 문학예술연구소 · 민족문학사연구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월혁명연구소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 시민환경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학연구소 · 제주 4. 3 연구소 · 한국공간환경학회 · 한국교육연구소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국산업노동학회 · 한국산업사회학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상 학술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민족 경북대
≪진보정당의 미래와 대학생의 역할≫ 특강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이번에 저희 경북대학교에서 2002년 격변하는 새시대를 주인답게 준비하고 모두가 갈망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에 우리 대학생의 역할을 슬기롭게 찾아보고자 정치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과 단체들이 진보정당의 미래와 자기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기운이 번지고 있고 이에 발 맞춘 대학생들의 노력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도 그동안 진행해 오던 많은 토론과 논의의 성과를 경북대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대학생의 역할을 높여가기 위해 정치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관심속에 정치특강이 알차게 진행되고 이 성과를 이어서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데 대학생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 2002년 11월 5일 오후 6시
* 장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 주제: ≪진보정당의 미래와 대학생의 역할≫
* 강연자: 천병태 선생님(전 울산연합의장,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활동)

경북대 학우들과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족경북대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92개 시민사회단체, 집시법 개정 투쟁 돌입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범민련 등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과 관련법률의 악소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시켰다.

이들 단체는 발족선언문에서 ≪87년 6월 항쟁, 길게는 수십년간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어렵게 ≪집회와 시위의 공간≫을 쟁취해 왔지만, ≪집시법≫의 덫에 걸려 그 공간은 다시 사라지고 있다≫며 ≪곳곳에 박혀 있는 독소조항들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외국대사관 및 국회등의 100m반경내 집회 원천금지 조항(11조) △ 집회에 대한 사전금지 조항(5조) △ 중복집회 금지조항(8조) 악용한 위장집회 △일몰후 집회금지 원칙(10조) 등이 현행 집시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연석회의는 또 ≪그동안 경찰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조과했다는 이유로, 예정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시위대를 연행한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며 ≪현행 집시법의 과도한 신고규정(6-8조)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석회의는 오는 31일 ≪올바른 집시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로, 명동, 광화문 등 위장집회 장소를 집중 모니터해 장기간 허위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를 갖지않는 상인회, 관변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준하 기자
©2001 유뉴스 10월 23일

≪외국공관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대사관 앞 집회 보장≫
≪보복전쟁중단, 한국전쟁지원 반대≫
≪장애인이동권 보장≫
≪박정희기념관 반대≫
≪삼성 이재용 불법세습 반대≫



50여 개의 피켓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양각색의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한 장소에서 펼쳐졌다. 현행 집시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고 집회 ·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은 1인 시위를 선택, 직접 행동에 옮긴 것이다.

지난 1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종로2가 국세청 앞에서 집시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행동으로 각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아 50인 제각각의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곳은 건물주인 삼성에서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면서 집시법 11조에 의해 반경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된 곳이다.

공동행동은 각 시민단체의 50인이 각각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각자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전개했다.

이는 외국공관 반경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재벌들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대사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봉쇄해온 행태를 고발하고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이날 50인 50색 1인 시위는 ≪대사관 앞 집회 보장≫ 1인 시위 외에도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석방≫, ≪WTO반대≫, ≪상설적 특검제 도입≫ 등의 각 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국세청 앞 곳곳에서 펼쳐져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종로경찰서 측은 오후 12시 5분쯤 ≪이런 변형된 1인 시위는 집시법개정이라는 목적으로 이뤄진 공동시위≫라며 ≪이는 현행 집시법 위반이므로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종로경찰서 정보2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시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 시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을 준다≫며 ≪건물주의 항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현재 50인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며 1인 시위이므로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후, ≪불법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자의적인 법해석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어떤 소음이나 불안감 조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50인 50색 1인 시위가 집시법에 근거한 것처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것은 더욱 아니며 건물주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고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1인 시위가 벌어진 1시간 동안 이를 해산시키지는 않았다. 경찰 측으로서도 이날 1인 시위를 집회라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1시간 동안의 1인 시위 후, 연석회의는 ≪외국공관 100m이내 금지조항뿐만 아니라 허위장기집회 신고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경석 cks21@pspd.org
월간 참여사회

정부 논란속 ≪인터넷등급제≫ 강행

사상 · 표현의 자유침해 폐지 VS 청소년보호 필요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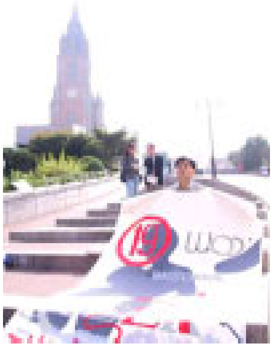
이에 대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통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은 강제적인 국가에 의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이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가 밝힌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음성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전에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자 · 영상 매체물의 경우 앞서 명기한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전에 자막으로 표시해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19로고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해야 한다.



정통부는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해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전수해서 금년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통부는 인터넷등급제의 시행으로 ≪학부모 · 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정통부 ≪사이버상 유해정보 효과적 차단 기대≫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공동행동은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에 대해 많은 사회단체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정통부 장관고시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방법은 PICS라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PICS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되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공간(청소년보호법)에서 PICS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도록 의무화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표시만을 요구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행동 ≪인터넷등급제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검열제도 폐지해야≫

정통윤이 제작, 시험배포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기본적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함≫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행동은 ≪정통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받는 순간 PC방, 학교, 도서관 등 대다수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차단된다≫며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판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을 사회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의 내용을 제입맛대로 걸러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국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검열일 뿐이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에 의한 피해사례 속출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한 네티즌에 대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비난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포털사이트에 옮긴 혐의로 한 네티즌이 같은 컴퓨터 수사부에 의해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풀려나왔다.

이준희 기자 ⓒ 2001 디지털말
2001년10월23일

디지털말 웹마스터 구속

이회창 총재 비방 게시물 포털사이트에 옮긴 혐의

2일 오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 말(www.digitalmal.com)≫의 웹마스터 이대성씨(29)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컴퓨터수사부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이란 글을 이씨가 자주 이용하는 다음카페(www.daum.net) ≪항상 웃음이 넘쳐 흐를까?(웃음동)카페에 ≪교실2데아≫란 이름으로 복사해 올려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경 집에서 출근준비중이던 이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벌인 다음 20일 오후 석방한 바 있다.

그후 이씨는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말≫ 창간을 위해 회사업무에 매진해 왔다. 11월 2일 검찰의 출두요청에 따라 이씨는 2일 11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출두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풀려 나온 후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게시판에 오른 글을 단지 다음카페에 옮긴 것뿐인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체포해 수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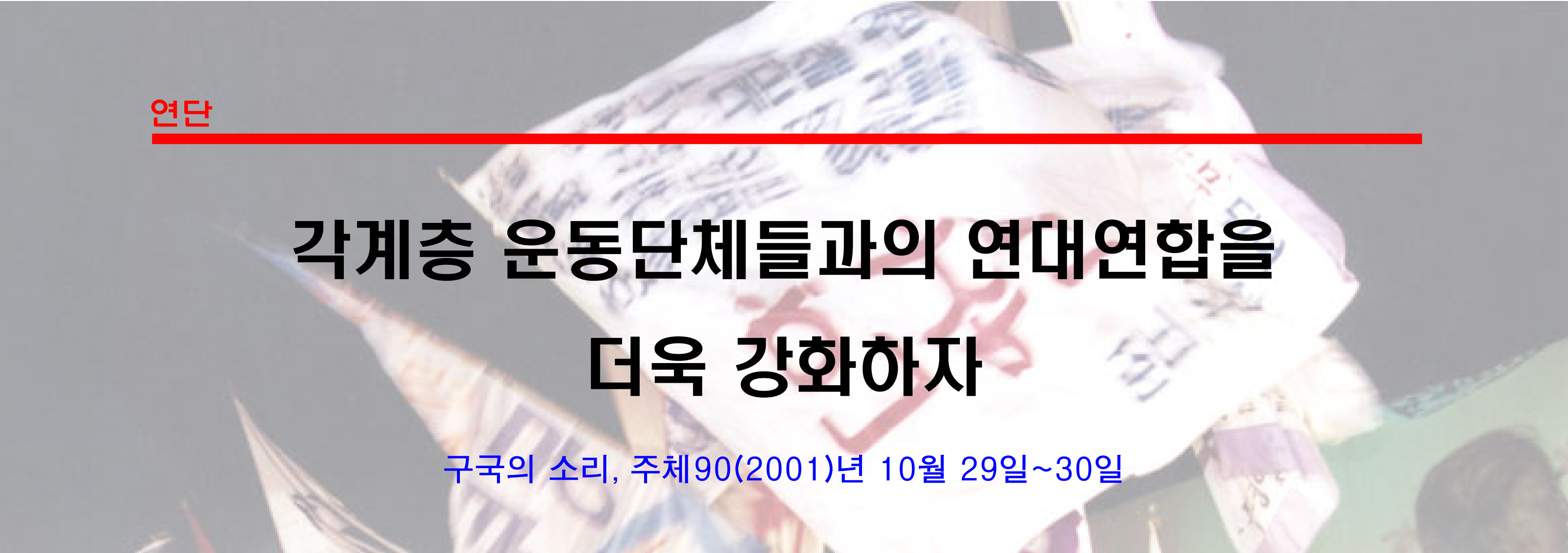
또 ≪그날 컴퓨터 수사부가 김대중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40대 네티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며 ≪나에 대해서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 2001 디지털말 2001년11월02일

미국이 이북의 종교에 대해 걸고 든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4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제는 지난 10월 26일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마치 종교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여러 나라들의 종교실태에 대해서 제멋대로 시비하면서 감히 이북에 대해서까지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먼저 미국이 북의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걸고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미국은 국제종교자료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데서 이북을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관련대상국으로 추가포함시켰다면서 이북이 종교인들을 구타, 체포, 학살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내세워 이북의 종교정책을 헐뜯다가 규탄을 받은 바가 있죠. 또 미국은 국무성관계자들을 내세워 종교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북을 고립시켜보려고 너절하게 책동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양심적인 종교인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이북에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든 건 절대로 용납못할 작태라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죠. 미국은 지난 6.25전쟁시기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을뿐 아니라 무차별 폭격을 가해 1,900여개의 교회당, 성당, 절간들을 파괴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죠. 인류역사에는 전쟁들도 많았지만 미국과 같이 교회당, 성당, 절간들을 파괴하고 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 미국이 감히 이북의 종교문제를 갖고 시비질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봐요.
사회자 : 그렇죠. 이북의 종교인들이 아무런 차별없이 공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국제사회와 종교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북에서는 헌법상으로 종교활동의 자유가 규제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종교관련기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설립되어 있고 전통 성당을 비롯한 교회당들이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북이 종교자유가 없고 종교인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은 다 거짓말이죠.
실제로 이북을 방문한 많은 국제종교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종교단체들, 종교인들도 이북의 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직접 목격하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불과 2년전에 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이북을 공식방문했을때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턴이 직접 만나주기까지 한 사실이 있고 미국종교지도자 빌리 브라운 목사가 여러번 이북을 방문해서 이북의 종교인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공동예배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현정부가 모를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줴다 외면하고 미국이 정치매춘부노릇을 하고 있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사이비종교단체를 내세우다 못해서 이번에는 당국까지 나서서 신성한 이북의 신앙생활을 시비해 나선 것은 이북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 있느냐 하는걸 그대로 보여주게 했죠.
사회자 :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이고 미국의 법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북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작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밑에 이북의 종교인들의 신성한 신앙생활을 터무니없이 걸고든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종교단체들, 모든 교직자와 교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또 존엄높은 이북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행위로 간주하면서 이북의 전체 종교인들의 이름으로 준엄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탄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자 : 허위와 날조로 진실을 오도하려는 건 망상이죠. 미국의 너절한 작태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사람도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은 허위와 날조, 모략을 식은 죽 먹듯하고 있죠.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들까지 날조해서 혹은 날조해 내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무력침공까지 감행하고 있죠. 미국이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기습사건의 범인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가해 무고한 이슬람교인들을 살해하고 있는 사실이 그처럼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미국은 북을 헐뜯는 너절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남의 집안일을 놓고 시비질하기 전에 지난 6.25전쟁시기 북의 종교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무고한 종교인들과 양민들을 대량학살한 그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서 즉각 사죄하며 간악무도한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때 미국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거고 국제적 고립 *****라고 보는데요.
사회자 : 이번 기회에 미국에 한마디하고 싶은 건 미국지배층이 세계를 눈아래로 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미국지배층은 미국의 국내법을 국제법위에 올려놓고 미국정부를 유엔 위에 서있는 세계정부로 내세워 국제법과 국제관계기구를 짓밟고 무제한한 행동의 자유권을 행사하며 극도의 독단적인 전횡을 부리는 그런 망나니행동도 국제사회의 정의를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종교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의 종교문제를 시비해나선 것도 바로 미국의 오만무례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허위와 날조, 모략만을 일삼고 있는 세계최대의 불량국가인 미국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위에 끌어내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미국이 이북의 종교문제에 대해 시비해 나선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북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북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경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9일~30일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라 하잖아요. 정말 조국통일을 위해 줄기찬 나날들을 보낸 운동가들에겐 되새겨볼 추억 참으로 많은 이 가을입니다. 금강산에서 메아리치던 통일의 함성 어제일처럼 귓가에 쟁쟁히 울려오는 듯 하구요, 8월의 통일대축전장을 뜨겁게 달구던 통일열기가 오늘도 우리 가슴을 후덥게 합니다. 민족대단합의 기운이 한껏 높아가는 속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을 되새겨보며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할 일념에 불타고 있습니다. 네, 학생운동가 최모씨의 글을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각계층 민중들의 통일운동에서는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각계층 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이 일층 강화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변화들 중의 하나이다. 한두단체들만이 아닌 수십여개의 운동단체들을 망라한 통일연대와 평화통일시민연대와 같은 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개별적 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전개되던 투쟁들이 여러 운동단체들의 참여속에 공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각계층 운동단체들이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과 북의 어느 지역의 민중이나 어느 한 계급과 계층, 어느 한 당파나 개별적 인사들의 의사와 힘에 의해 해결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7천만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이같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이고 담당자들인 우리 민중이 굳게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것과 함께 이땅에 각계층 운동단체들이 연대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관철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지금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반북대결에 광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6.15공동선언발표이전으로 되돌려 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한편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에 편승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위력한 힘은 각계층 운동단체들의 단합된 힘이다. 각계층 운동단체들이 일치단결해야 통일의 주인, 당사자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운동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금 공안당국은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선 통일애국인사들과 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면서 그 주되는 예봉을 학생운동말살에 돌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층 운동단체들과 더욱 굳게 연대해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지향과 목적의 공통성은 단결의 전제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 겨레의 일치한 지향이고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의 단결의 기치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각계층 운동단체들을 결속시키는 기수가 되고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운동핵심들은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속에서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투쟁을 조직해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의 참여속에, 더 많은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속에 진행해나가겠는가 하는데 관해 머리를 쓰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학생운동을 각계 민중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학생운동은 각계층 운동단체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고 투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변천되는 정세와 투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항상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정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중이 공감하고 호응할수 있는 투쟁방법과 전술을 모색하고 그것을 대중투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각계층 운동단체들의 투쟁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금 이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운동단체들의 투쟁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다른 운동단체들이 진행하는 투쟁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라면 적극 동참해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떤 단체가 탄압을 받으면 그를 반대해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들은 운동단체들의 단합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위력을 더욱 폐부로 절감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일부 단체들사이에 내재했던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단결을 더욱 공고화해 나갈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각계층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여러 운동단체들의 참여속에 조직된 ≪통일연대≫와 같은 조직들이 실제로 은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공동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투쟁사안과 투쟁*들을 더 많이 제기하는 등 서로 조직된 통일운동단체들이 활동을 힘있게 벌여나가도록 하는데서 어느 단체들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들을 이같은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망라시키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이 진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통일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일~4일

이 해도 어느덧 마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민중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1년동안 통일의 부푼 꿈을 안고 통일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운동은 민중의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했다고 할겁니다. 그건 공안당국과 우익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발표로 남북사이에 마련된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로운 시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그에 역행해서 국보법을 휘두르며 의로운 통일애국운동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겁니다. 네,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통일체≫ 오일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통일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주체78 (1989)년 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당시 이북을 방문한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신 석상에서 민주주의와 통일,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석님의 이 가르치심은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중에게 통일과 민주주의는 상호 연관된 문제이며 따라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걸 밝혀준 명제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통일이라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70고령의 몸으로 용약 평양을 방문한 문목사를 따뜻이 만나주시며 그에게 주신 주석님의 이 가르치심은 오늘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민중에게 조국통일투쟁과 민주화투쟁을 서로 밀접히 결합해 나가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통일,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이 연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보다도 이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 통일실현의 전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정치이념이고 광범위한 민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써 마땅히 행사해야할 권리라 하겠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요건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느 한 계급과 계층, 어느 한 당파나 개별적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만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입니다. 그런만큼 온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이룩될수 있는 겁니다.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건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인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과거 이땅의 역대 집권세력은 반공, 반북을 고창하면서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한편 파쇼통치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접촉과 왕래를 차단함으로써 민족의 진정한 단결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야 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온지 1년이 훨씬 지난 오늘도 악명높은 국보법이 그대로 살아있어 통일운동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땅에서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이북과의 대결을 선동하며 통일애국인사들을 이적으로 몰아 감옥으로 끌어가는 사태들이 연일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민주주의가 말살된 조건에서는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는 겁니다.

사실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나 또 이땅의 통일애국세력이 조국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서나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통일과 민주주의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건 또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곧 민주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은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들과 폭압기구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중이 벌이는 조국통일투쟁이 이땅의 반민주, 반통일악법과 기구를 철폐해야만 성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망라된 이땅의 각계층의 민중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안법의 철폐를 비롯한 각종 반민주악법과 기구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할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민중의 조국통일운동이 사회의 민주화실현을 적극 떠밀어준다는 걸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이 벌여온 장구한 통일운동사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하나의 통일적 과정속에 전개되어 왔다는 걸 뚜렷이 증시해주고 있습니다. 민주화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던 4.19봉기나 6월민중항쟁은 통일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통일운동발전의 계기를 열어놓았고 90년대에 들어와 해마다 벌어진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조국통일운동이 민주화투쟁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작용해온 사실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오늘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이 일부 계층에 국한된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중적 운동으로 전민족적 운동으로 전환된 건 다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힘있게 벌여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통일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통일이 서로 뗄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통일운동을 사회민주화투쟁과 밀접히 결부해 벌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12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문익환목사에게 하신 훌륭한 가르치심을 가슴 뜨겁게 회고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각계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양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을 보면서 우리 민중들이 일치하게 느낀 건 국보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그냥 두고서는 통일을 성취할수 없다는 것이였죠.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국보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며 국보법철폐투쟁을 완강히 벌이고 있는거죠.

≪진보정당 대토론회≫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 기획안

1. 취지

− 각계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 논의를 하나로 모으고 공론의 장으로 올려 놓음으로써 진보정당에 대한 전체 운동진영의 의견을 결집해가는 계기로 삼는다.

− 한국사회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진보정당운동 발전의 일대 계기가 될 2002년 양대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동대응방향을 모색해 본다.

2. 개요

▶ 일시 : 2001년 11월 14일(수) 저녁 7시
▶ 장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구관) 2층
▶ 규모 : 300명 정도
▶ 주최 :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 전국연합 진보정당특별위원회
▶ 의제 :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

3. 구성

전체사회 :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

▶ 토론사회 :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겸 민주노동당 부대표
▶ 기조발제 :
정성희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정대연 전국연합 진보정당 특별위원회, 정책위원장
* 기조발제는 포괄적 주제에 대한 두 단체의 종합적 의견을 밝히고 토론지점을 제공한다.
▶ 토론자 :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강명기 전농 사무총장
최인기 전노련 사무처장
한총련
이영자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여성)
서주원 환경련 사무처장
김두관 남해군수(자치연대)

4. 진행

1) 간단한 개회식 : 민중의례, 내빈소개, 토론회 개최의 의의와 토론회 사회자 소개(10분)
2)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3) 제1발제(15분)
4) 제2발제(15분)
5) 각 토론자 토론발표(각 5−7분=약 40분)
6) 발제자 및 토론자 상호 토론(30분)
7) 방청인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60분)
8) 정리발언(발제자 토론자 각 2−3분=20분)
9) 마무리 : 사회자



조국

사람들은 누구나 조국을 생각할때
나서자란 고향집을 그리더라
어린날 뛰놀던 뜨락
파아란 하늘이 추억속에 어려오는
정갈한 박우물을 눈앞에 보더라

그때문인가
백두의 깊은 계곡
소백수 푸른 기슭에 서있는 한 채의 귀틀집앞에서
내 지금 조국을 생각하는 것은

뜨락에는 설레는 천고의 밀림
그 너머엔 눈덮인 아득한 광야
우리 혁명이 헤쳐온 준엄한 만리길을 한몸에 섬기고
숭엄히 솟아 있는 백두고향집

아- 간고한 전투와 행군, 모진 눈보라와 광풍을 이기며
기개 떨친 조선의 담력
이 집이 소중히 안고 있구나
이 나라 민족사는 저 준철서린 추녀밑으로 굽이쳐간
영광찬 그 연대로 하여 위대해졌나니

청청한 정기가 피여나는 소백산일까
서리꽃 하이얀 밀림속으로 조용히 울려간 자장가소리
여기서 조선의 넋이 자랐다
여기서 해가 뜨고 이땅의 새 세기가 밝았다

그래서 저 산발너머 싸움길 떠나간 투사들
설사 다시 못 올 준엄한 길도
이 귀틀집을 돌아보며 기꺼이 갔던가
저 들창너머 창창히 열린 조선의 푸른 하늘을
그리도 환희에 넘쳐 안아보았던가

내 오늘도 이 집앞에서
자그마한 들창가에
사시절 이땅의 정기로 피어나는 2월의 봄빛을 안고
승리한 혁명의 미래를 바라보나니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고향집이여
정녕 너는 우리에게 조국과 같아라
나에게도 먼 후손들에게도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넋이 있고
세계에 자랑 떨칠 존엄을 주는 위대한 우리의 조국이어라

주체 90, 10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0월 25일 통일연대 등 일부 방북단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관련보도심판청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미국대통령 부시가 아펙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북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북을 심히 자극하는 발언을 한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대북강경책을 쓰면서 클린턴행정부때 좋게 발전하던 북미관계를 모두 뒤집어엎었다. 부시는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걸고들다못해 북의 상용무력감축문제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대화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북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런 강도적 요구를 내건 미국과 누가 대화할 것인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통일후에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할뿐아니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구실로 한국에 공군무력을 증강하려고 책동하면서 북의 상용무력을 감축하라고 떠들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한 수작이 아닐수 없다. 북미대화가 중단상태에 빠지고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시때문이다. 미국의 그릇된 대북적대시정책은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통신 계약직노조원 30명은 24일 서울 **구 공중전화본부앞에서 부당해고규탄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분간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는 10.26사태 22주년을 맞아 서울 탑골공원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희기념관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주체 90, 10월 30일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울에 사는 언론인 이정문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부는 10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재침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미군기지되찾기운동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8일 부평미군부대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서명작업을 거쳐 이 단체들은 전국 최초로 구민투표조례를 제정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다수가 찬성할 경우 정부에 미군부대이전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군기지이전이 아닌 완전한 반환을 주장하며 부평미군기지앞에서 10월 28일 현재 500일 넘게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도 11월 9일 오후 4시에 부평구청에서 부평미군기지문제해결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정권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명하는데 반대해온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10월 2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명하는 교육대학점제에 반대해 교육대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을 시작한데 이어 교육대총장들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것과 관련해 이북주재 러시아연방대사가 10월 29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이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평양대극장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86 ≪우주공간의 평화적이용에서의 국제적 협조≫에 대한 토의시 이북대표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은 우주공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들인다며 이른바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우주를 군사적으로 독점하려는 속셈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수립과 개발도상국들의 자구적인 우주개발권리를 유린하려는 시도를 중지할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의 법률위원회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체 90, 10월 31일

10월 29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 건물벽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문구의 현수막이 나붙어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가로 6센티미터, 세로 10미터에 달하는 현수막은 나붙자 수많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당혹한 경찰은 홍근수담임목사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강요했으나 교회측은 이날밤 10시 15분까지 놔두었다가 철거했습니다.

경찰은 향린교회 교인으로 있는 동국대 강정구교수가 만경대방명록사건으로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교인이나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복작소동을 벌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와 서천, 고성 등 전농 경남도연맹 *** 농민회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현금이 아니라 올해 수확한 벼로 납부하겠다며 10월 30일부터 현물납부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도서출판 ≪자주민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연합회관에서 월간 ≪자주민보≫발행인 등 3명의 구속언론인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전교조가 10월 12일 집단조퇴와 27일 대규모 연가투쟁을 진행한데 이어 파업에 준하는 투쟁도 불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교대생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발해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1월 7일 교육파탄정책저지 등을 위한 대규모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자민련의 오장섭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반통일집단인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북에 쌀을 지원하는 대신 북에서 대체 어장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데 대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댓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한나라당집단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댓가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사실에 있어서 이건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를 내려 누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가 어려울때 북이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84년 수재때만 봐도 그렇다. 그때 북은 쌀, 천, 의약품, 시멘트 등 국제적십자지원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구조물자를 보내면서도 어떤 댓가도 바라지 않았고 부대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재난을 당한 동포들, 형제들을 위한 진정뿐이였다. 북의 이런 지원, 이런 성의에 비하면 우리가 한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댓가를 받아내야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인가. 눈을 씻고 세상을 둘러봐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댓가를 바라는 건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밖에 없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의리도 없는 패덕한의 무리들이다. 한나라당패거리들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안되는 것은 물론 조상대대로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면서 살아온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흐려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살려나가자면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지체없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월 30일 오후 신문시장정상화를 위한 관련법률개정안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에서 재일한국조선인천명반전평화선언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서승규씨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은 증오의 연쇄를 낳을 뿐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는 10월 28일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8.15 평양축전 방북단 7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 법의 문제점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금야군농기계작업소 정은교 지배인과 흥남시 하덕고등중학교 최태봉교장,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1동에 사는 전상덕씨에게 보내신 생일 일흔돌상이 그들에게 전달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일

서울 시내에서 활약하는 ≪민족사랑회≫의 명의로 제작한 **김정일**장군님 칭송 노래집 ≪태양찬가≫가 시내 각계 민중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10월 23일 성명을 내고 공안당국의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10월 24일 성명을 내고 공안당국의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각계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추종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미국이 테러보복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인적인 전쟁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놓고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들에도 공격을 가하겠다느니 뭐니하며 전쟁을 확대하려 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른바 전력공백을 떠들며 한국에 공군무력을 비롯한 전력을 증강배치하고 있으며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그런데 당국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나섰으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6.15공동선언에 대치되게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되겠는가.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지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끌려다니는 당국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동족을 압살하려는 외세와 동조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란다면 대미추종정책을 버리고 남북공조를 견지해야한다.≫

또 종교인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은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빨리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러자면 남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절대 배격하고 6.15공동선언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공조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벌이려고 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 없다고 본다. 또 테러가 예상된다면서 복작소동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인명을 태운 비행기가 오갈수 있겠는가. 이치에도 맞지 않은 억지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회담과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충북 영동군 상천면 주민 500여명은 10월 29일 오전 상천 노인회관앞 광장에서 화학무기폐기시설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국방부의 화학무기폐기시설로 인해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을 자랑하던 이 지역이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수 없는 오염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문제의 시설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1부 이경흥검사와 전현직 특수1부장 등 검사 11명은 10월 30일 조선일보의 검찰무영장 계좌추적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활동과 관련된 비호를 받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24명이 현행 국회법을 어기고 상임위활동과 관련된 업계에서 대표나 고문 등으로 재직중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사범이 확산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여직원이 치명적인 호흡기 탄저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달 첫주 미국내에서 탄저병 공포가 시작된 이후 모두 10명이 호흡기 탄저병증세를 보였으며 사망자는 ***을 합쳐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체 90, 11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적 반미투쟁에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는 격문과 투쟁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4개 노동단체는 지난달 31일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1인 계주시위를 연말까지 SK본사앞에서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로부터 거둔 교원성과금 291억원의 반납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사확충방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생들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각계에서 남북관계가 원만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정권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도입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232명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의 한 형태가 될수 있는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시 덕성면 **마을에 포탄 3발이 떨어져 집채 2채가 붕괴됐습니다.

무분별한 군사훈련에 동원된 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이같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지난 1일 이북을 방문한 중국공산당위원이며 요녕성당 부서기인 장문악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요녕성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해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여러 나라 인사들이 지난 6.25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대학살만행을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여러 나라 신문, 방송들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거대한 견인력을 갖고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이 조선로동당을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일본당국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그 관련대상들을 강제수색하고 자료들을 압수했던 폭거를 규탄해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가 10월 22일 에콰도르 주재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체 90, 11월 3일

서울 시내 일부 서점들에서 **김정일**장군님 칭송서적들을 비밀리에 판매해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은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공서비스노조연맹이 1일 이 연맹의 아시아지역 총회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과 공공부문의 직권중재철폐를 한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기표 전 민국당 최고위원 등 재야인사들이 신당준비모임인 푸른정치연대가 1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출범했습니다.
개혁신당창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부영 한나라당부총재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이념대립의 통일 등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강조하고 재야가 앞장서면 계속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민주당의 김근태최고위원과 김창복위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미국에 일어난 테러사건을 기회로 지난달 29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목적으로 작성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 일본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최근 미국이 북의 종교문제에 대해 시비해 나선 것과 관련해 2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요녕성 당위원회 장문악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요녕성당위원회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 ≪ㅌ.ㄷ≫결성 75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1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세계 진보적 정당들과 사회계는 조선로동당을 세계혁명***들의 희망의 등대라고 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월간에 즈음해 지난 10월 17일 마다가스까르 전국 라디오방송과 ≪엔테르≫방송은 한반도는 연방제방식으로 통일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